

영적 성장

The Spiritual Growth

Preaching of the Cross Series

영적 성장

The Spiritual Growth

James W. Knox 원저

이우진 편역



도서출판
진리의 성경

The Spiritual Growth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2014 by The Scripture of Truth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영적 성장

원 저 자 | James W. Knox

편 역 자 | 이우진

펴 낸 이 | 이우진

표지사진 | 이종열

디자인·편집 | 김화영

펴 낸 곳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초판발행 | 2014. 10. 1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5-4 지하

전 화 | 010-2322-1611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bbckjb>

(이 책의 PDF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ISBN 97911-86022-00-9

■ 정가 12,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CONTENTS

1.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감	11
2.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31
3.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48
4. 양심	68
5.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88
6. 겸손하라	109
7. 인내	129
8. 하나님의 뜻	148
9.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161
10. 애정(Affecrion)	179
11. 하나님을 기다림	197
12. 먼저 구해야 할 것	217
13. 날마다 해야 할 것들	238
14. 정결하게 됨	257
15. 두 본성	278
16.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음	297
부록1: 가장 중요한 질문	323
부록2: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335

But I will shew thee that
which is noted in the scripture of truth...
(Daniel 10:21a)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다니엘서 10:21a)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 Christ Jesus Publications.

번역자 서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 부모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기쁨은 근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몸과 마음이 모두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적는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더 적은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후 2:4).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하며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 놓으셨으며,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단지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영

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분을 믿어야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 아기로 남아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미국플로리다 주의 딜랜드 시에 있는 성경침례교회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임스 닉스 목사가 영적 성장에 관해 16번에 걸쳐 설교한 것을 역어서 한국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원저자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고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번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 더욱 정확히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골 1:10)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엡 3:16)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엡 4:15)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벧후 3:18)

저자와 역자와 독자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4년 9월

이우진 목사

1.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감

본문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체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때에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도 보거니와 그 사람은 미쳤도다.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필요하여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내 집에 들어 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삼상 21:10-22:1)

1. 다윗은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서 비참한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으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배워야 할 게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방법과 계획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위기가 닥치자 이스라엘에서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칼을 허리에 차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간 것입니다(삼상 17:4). 그는 사울이 장막에서 떨고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사울로 인해 두려워하며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자와 곰을 죽였으므로 골리앗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사울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는 바로 그 사울을 피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가드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드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바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으로 가서 무

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특별한 섬김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그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으로 배운 것만이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승리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새로운 문제도 믿음으로 대하고 또 다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승리는 앨범에 있는 추억의 사진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자 중에는 지난날 술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고 승리하게 하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당신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자랑이나 하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당신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담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더러운 성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육체적인 어려움 일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승리를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앨범을 들춰 보듯이 그저 회상이나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으

로 그것을 무기로 삼아 또 다른 시련과 어려움에서 승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한 위기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믿음과 승리가 현재의 불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특이한 글이 적힌 스티커를 붙인 트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붙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꽤 인상 깊은 문구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당신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는 곳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할 때 당신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음으로 그 일이나 그 상황과 정면승부를 하기 원하시는데 당신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거나 숨어버리거나 회피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거나 숨어버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일은 믿음으로 하기 원하면서 그 일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회피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망가면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 팔레스타인으로 갔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도망친 곳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간다고 해서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도망간 바로 그곳에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배우길 바라는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갑니다. 그곳에서는 자신들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 편하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어느 교회를 다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가본다 해도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당신의 안락한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나 목사나 다른 성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피해 다윗처럼 팔레스타인으로 갈 수도 있고 눕이나 가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요일 2:27).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롬 8:28).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제 안에서 일하시고 제가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쁨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 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맞서지 못하고 한 가지 어려움을 피해 도망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젊은 여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방탕하고 문란하게 삽니다. 그러다 결국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여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위로를 받고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그녀를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녀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임신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녀는 구원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녀와 함께 계시게 된 것이지 문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지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자동으로 승리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생하거나 큰 병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침 받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배우기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그 방법을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결코 주님을 알 수 없었을 거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2. 우리가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요 10: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

려움과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 주님을 알게 되었듯이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해 주님을 더욱 풍성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모든 면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서 잘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직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갓난 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여기 저기에는 보기 좋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훈련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령을 들고 훈련을 해야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점점 더 강한 훈련을 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세지는 것과 같이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십니다. 당신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어깨에 있는 짐을 믿음으로 들어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a man after God's own heart)이었습니다(삼상 13:14). 그러나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지은 모든 죄와 다윗의 육신이 드러나는 부분과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성경을 통해 다윗이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와 그 밖의 다른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고난이나 문제에 직면하면 그만두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3.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많은 목사들이 자신은 사도 바울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I follow after).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꾀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9-14절)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완전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잡지는 못했지만 쫓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뒤따라 (follow after)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건 상관없이 다시 일어나 쫓대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간다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머리는 단정하지 못하고 옷차림은 완전히 세상적이며 냉장고에는 맥주가 가득하고 아직 성경을 몇 장 읽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계획 외에는 성경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구원받은 지 20년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지난 20년간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두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지 일주일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가 너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 없구나. 너는 마음으로 나를 추구하고 따르기로 결정했구나. 만일 휴거가 20년 후에 일어나고 네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했다면 너는 추구하는 것을 이루었을 것이고 뜻대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구원받은 지 20년이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을 겁니다. “너는 구원받은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한 게 없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추구하지 않았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구나. 너는 그저 구원만 받았을 뿐 이구나. 너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 구원받은 지 2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지 않고 주님을 뒤따라 가고자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당신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추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십억 원을 주시면 선교사들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십만 원을 주셔도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십억 원을 주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오만 원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억 원도 제대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약 4:4). 성경은 세상의 친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친구는 아니지만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죄를 실제로 짓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서 무엇을 추구하고 뒤따라 가는지 보십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는 가야 할 길이 멀고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하고 응답 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네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네게 주시리라.”(시 37:4)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멋진 차나, 멋진 아내나, 멋진 남편이나, 좋은 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십니다.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충만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죄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다윗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일
어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신한 그곳에도 그가 두려워한
것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가 회피한 문제가 계속 따라온 이
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하신 문제를 회피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전전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이름도 다르고
신앙도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시고자 하기 위해 두신 사람
이나 상황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어떤 교회에 가든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자 하시기 때문입
니다.

다시 사무엘상 2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며 천년왕국 때 통치하실 예
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체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
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왜 다윗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의 안전을 추
구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걸
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
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미친 짓을 하는 걸까요?

다윗의 행위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미친 짓을 하는 다윗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회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회피한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다윗의 미친 짓으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믿음으로 맞서지 않고 피해 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직장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동하는 방식과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과 가정에서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미친 짓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도 보거니와 그 사람은 미쳤도다.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것을 11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다윗의 과거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 가운데서 자신

의 간증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어디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오더니 “혹시 지난주에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분 아니신가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제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피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을 찾아와서 그 문제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에게 아벨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겼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은 결국 미친 짓을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람과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스스로 주관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면 바로 다윗을 보면 됩니다.

4. 다윗은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편 56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경험을 토대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요냐엘렘르호킴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묵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드에서 붙잡은 때에 지은 시) 오 하나님이며,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날마다 싸우며 나를 학대하나이

다.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나와 싸우는 자가 많나이다.”(시 56:1-2)

다윗은 여기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정죄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실수를 자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란 아닌 우리가 당한 문제에 두면 우리는 문제를 확대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을 대적한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싸우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봤기에 문제가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그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3-4절)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암송해야 할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믿지 않은 채 암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가드에서 원수들에게 붙잡힐 때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고백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나니 악을 행하려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들이 내 혼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자기를 숨기고 내 발걸음을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불법을 써서 피하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

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므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5-9절)

이제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원수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편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 보신다면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 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 드리는 서원들이 내게 있사온즉 내가 주께 찬양을 돌리리니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발을 건지사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리이까?”(10-13절)

13절로 시는 끝나지만 다윗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시의 중반 이후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시지 않았는가? 주님께서서는 죄와 사망과 죽음과 마귀로부터 나를 건지시지 않았는가? 만일 주님께서 나를 그러한 것들로부터 건지셨다면 지금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도 건져주시지 않을까?”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과 지옥과 마귀였습니다. 당신은 죽어서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에 가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크

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겠다.” 라고 하지 못하고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하리라(I will trust in thee).” 라고 미래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이후에 다윗은 주님을 신뢰했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성장하기 전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지옥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지금은 얼마나 더 당신을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신뢰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마 지금은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을 드릴 만큼 영적이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

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실패를 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감으로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함 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2.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약 4:7-8)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일곱 가지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바로 야고보서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실제적인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1.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손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특히 방금 읽은 야고보서 4장에 의하면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서는 저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즉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만큼 저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서 교제를 나누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삶에 어떤 능력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살며 불평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주님의 기쁨도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당신이 죄를 지을 때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죄가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목적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다른 때는 세상을 생각하는 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의 것들도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염려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버리고 손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멀어져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경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에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찾을 필요가 없고 마음속에서 기도를 막는 쓰레기들을 치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집에 돌아가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전부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면 당신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대부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릎 꿇고 기도한 지 5분이 되지 않아 머릿속이 온통 뉴스와 세상과 내일 있을 일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도록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럴 시간도 여유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날과 같은 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밤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날에 대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마 24:37-39)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에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게 죄입니까? 노아의 날에 사람들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음료를 마시는 게 죄입니까? 노아의 날에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일하고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온 마음과 생각을 그러한 일들에만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며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할 일과 의무와 권리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깨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분주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켭니다. 하루 종일 TV를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잘 때까지 TV를 켜 놓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마귀는 당신이 온 종일 이 세상에 대한 것들과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을 전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없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형제님, 저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도 이렇다면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결국 당신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세상과 주님을 향한 두 마음을 정리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는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간을 사용하는 데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와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십중팔구 거짓말일 겁니다. 이것이 바른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믿지는 않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이나 돈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가정이나 식사나 휴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해도 그 설교대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치 탁구공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듯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아왔다가 주중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과 해 주실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3.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일곱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73:28)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좋아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좋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교회나 목사가 대신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교회에 참석하면서 성경공부 시간에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시간에는 참석하지 않는 걸까요? 이 시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는 참석하겠지만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을 배우는 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중요한 일이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각 개인이 결정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좋다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먹습니다. 자신이 먹는 그 음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어야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스스로 맛보아 알기 전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간증을 들어도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리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 간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전에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당신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

4.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시 95:2)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일들 하나 하나에 대해 감사한다면 당신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 경제상황이나 정치적인 문제나 기타 이 세상의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요 놀라운 분인지에 앞도 되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들과 주신 축복들을 기억해 보고 그것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도움과 돌봄을 생각하면 주님께 대한 감사로 마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들을 귀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만한 이유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젖값을 치러주셨고 부활하셨으며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이 세상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5.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래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시 100:2)

저는 성경이 “교회에 갈 때에는 노래하면서 갈지어다.” 라고 하거나 “다른 성도에게 갈 때에는 노래하면서 갈지어다.” 라고 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이나 교회를 생각하면 노래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노래가 아니라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찬송가를 가지고 집에서나 자동차 안이나 공원이나 숲 속이나 어디든 가서 주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진심으로

찬양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찬송가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실린 곡들은 대부분 비슷한 곡조로 이루어졌습니다. 500개의 찬송가 중 400개는 비슷합니다. 음정이나 박자가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찬양은 나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노래로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롤링스톤스나 비틀즈나 로큰롤 가수들이 음행이나 술취함이나 간음이나 방탕함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록 음정, 박자는 틀리지만 사랑하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영광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저 사람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겠습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교회에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잔디를 깎으라고 해서 잔디를 깎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을 다니면서 일찍 등교하여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로큰롤을 좋아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던 그 당시에 저는 긴 머리를 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찬송가를 집어 들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주님께서 해 주신 일에

감사하며 하염없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어디서 성경을 배웠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교제를 나눠주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실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간음을 하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찬송가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잠깐 들고 내려놓는 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더 자주 들고 펴서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찬송가는 성도들의 간증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예배시간에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하시기 바랍니다.

6.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도 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히 4:16)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갈 자격이 없어도 그냥 담대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잘났기 때문에 그냥 나아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왕좌 앞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당신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아 온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왕이 금으로 된 홀을 내려주는 사람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셨고 부르셨으며 금 홀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간구를 하고 중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님께서 당신과 저를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도움과 긍휼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7.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 앞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인간이 전능

하신 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마 11:28)

제가 아주 실제적이고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나아온다면 당신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혹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가지고 온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 문제를 쏟아 놓으세요.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얘기를 들어주고 성경을 보여주는 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건 저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형제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도와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당신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가거나 목사를 찾아가거나 또 다른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래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 다니느라고 헛수고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 계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하시며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목사에게 가봐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교회나 목사나 점쟁이도 당신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당신을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야 할까요? 찬송과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가십시오.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버리고 나아가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좀 도와주시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나 좀 반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너는 구원과 승리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기 내 왕좌 앞으로 나아 와서 가져 가거라.”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희가 가서 가져오는 게 좀 뭐한데, 그냥 선물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산타클로스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산타클로스는 일년에 한 번 나타나서

선물만 주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은 원하지만 하나
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만 주시고 가시든
지 아니면 선물만 택배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당신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
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절입니다. “그러
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
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
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사 29:13)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훈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지만 외형적으로 어떤 것들만 하면 주님께 가까이 있
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의 훈계를 가르치는 교
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만 하면 마음이야 어떻든 하나님께서 기
뻐하신다고 하는, 목사나 교회가 정한 규칙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정
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바르게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마
음으로부터 나온 바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아도 성
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14-15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만 속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누가 알랴?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누가 알랴?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는지 아십니다. 누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님께 나아가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공경하는지도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당신이 알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제의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를 통해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줄 것이라는 사실만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님과 그러한 교제를 나누게 해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1.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삼상 12:22)

사무엘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포함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14가지 나옵니다.

2.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민수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독특한 사람 중 하나인 발람이 나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발람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발람에 대해 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나귀가 그에게 말하는 장면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들이 발람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들 중에 발람 같은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부르심과 확신을 팔아먹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설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기 위해 고용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왕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자 하나님의 뜻도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더러운 이익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일을 하거나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서는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발람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설교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바른 것을 가르친다 해도 돈을 받지 않고서는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실 때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람이 보고는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마술을 구하지 아니하며 광야를 향해 자기 얼굴을 들고”(민 24:1)

당신이 어느 정당을 지지 하건 어느 국가를 지지 하건 상관없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이

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자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반역했고 배반했으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으며 수세기에 걸쳐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분의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흥미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받은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분의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받은 돈으로 밭을 사고 그 밭을 피의 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진 간에 세상은 그들의 손에서 피 값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 산 피의 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을 진작에 모두 제거해버렸을 겁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모두 폐기해 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찾아 새로운 언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모든 국가들 중에 우두머리 국가가 될 것이고 주위의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

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큰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스라엘이 이 세상 모든 국가들에게 복이 될 것이지 아십니까? 그들이 선행해서도 아니고 합당해서도 아니며 신실해서도 아니고 순종적 이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실 겁니다. 따라서 당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합니다.

3.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겠다고 하면 무엇을 구할까 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구하실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침대 곁에 서시어 당신을 깨우시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

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이것도 우리의 소원 목록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네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이것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왕상 3:9-12)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려주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나 재물이나 원수에게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보시는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신문이나 잡지나 책이나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며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보라, 저 사람이 지혜를 구하고 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저 사람은 건강을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들을 제거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

쁘시게 합니다.

4.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낭비한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시 51:16-19)

사람들은 설교를 잘 듣지 않고 오해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경을 연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역과 사역자들을 지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신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일들을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릴 때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희생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희생물을 드린다 해도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거리에서 설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거리설교를 해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수입의 십분의 일을 주님께 드려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행동이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노력을 드리는 것이든 재물을 드리는 것이든, 당신이 섬기는 동기가 의무감에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헌금함에 동전 두 개를 넣은 과부가 다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돈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의의 희생물을 드렸던 것이고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5.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115편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시 115:3)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

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한 일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말 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후회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순수하신 분이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잘못 행하시거나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단 한 번도 “큰일 났다. 완전히 망쳐버렸네.” 라고 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하실 일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빛이 있었으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별들과 태양과 달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것들을 보시니 좋았다고 합니다. 식물과 물과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만이나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하신 분이 자신의 완전한 창조물을 보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선한 일로 인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빌 1:6)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

겸 교사와 복음전도자와 돕는 자들과 은사들을 선물로 주셔서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도록 돕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자신의 교회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끝내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직 휴거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는 하지만 아직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 3: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심판을 받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가리키며 아들 하나님께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결국 정결한 신부를 얻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시키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 당신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시며 자신이 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를 볼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하시는 일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고 계신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6.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사야서 42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의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므로 율법을 크게 하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라.”(사 42:21)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의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자만이나 자부심이나 교만이 아닙니다. 저는 완전한 의를 가져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럽혀졌습니다. 저의 죄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제 자신의 방법이나 선행이나 수단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신의 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의로 인해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역시 아닙

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를 저에게 주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래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당신에게 주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결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7.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자신의 의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고난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이 부분을 읽고 있었고 빌립은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라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사 53: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혼에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혼은 우리의 죄로 인한 헌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분의 혼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씨를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손에서 번영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어떠한 여자와의 결혼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거짓말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여자와의 결혼하신 적이 없고 아이를 낳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상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군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권력자가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왜 자신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씨가 나올 것이며 그것이 번성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자신의 왕좌에 앉아계시면서 인간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혼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8.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마 3:17)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저는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두 시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시도한 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 시간이 다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실패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리면서 보냈구나.” 당신은 단 하루라도 하루 종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면서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매 시간, 매 분, 매 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우리의 인생 중에 단 하루라도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양심에 전혀 거리낌없이 자신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세 번이나 열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9. 복음 선포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고전 1:18-21)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인간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믿게 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할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지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방법을 매우 쉽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며, 선행을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매우 기쁩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서 제외되지 않는 구원방법을 만드셨고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10.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고전 12:14-18)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은사를 나누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셨을 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신이나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는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잘 하던 것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던 재능이 교회에 오면 은사가 되는 것이 결코 아

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의 재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무기는 실패할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재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11.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라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갈 1:15-16)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12.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골 1:18-19) 모든 은혜와 모든 덕과 모든 축복과 모든 고귀한 것과 모든 순수한 것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13.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히 11:5)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하늘로 들려 올라 갔습니다. 당신도 하늘로 들려 올라 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휴거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왜 들림 받아 올라갔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술집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전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악한 일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죄악의 어둠으로 덮여있을 때 누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시면 그분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히 13:15-16)

찬양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선한 행위와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과, 지혜를 구하는 것과, 의의 희생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독생자와, 복음선포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과,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러한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 우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는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시 8:3-4)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생각해 주실까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4. 양심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심의 열 두 가지 상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빛, 즉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거룩하심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거나 성경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언젠가 자신

들이 그분 앞에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양심 깊은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양심이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신의 능력껏 죄를 짓고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삽니다. 입술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마음과 생활은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낙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낙태가 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몸을 기계로 잘게 부셔서 빼내는 것은 합법이건 불법이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비단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국가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비양심적인 일에 대해 교회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그러한 일에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교회에 오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테이프와 CD를 사서 몇 번이고 다시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나 목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국가와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도들의 생활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것만을 가지고 그 목사를 비난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웬만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설교를 들으면 그게 다 자기 얘기 같았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양심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실상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에 쓰러져 엎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더러운 자이며 불결한 입술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던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모세도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죄로 악해진 양심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총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히 10:22)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로 악해진 악한 양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짓는 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죄로 정죄하신다고 하면 성경을 정죄합니다. 성경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죄로 정죄하신다고 하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순결하지 못한 것을 죄로 정죄하신다고 하면 성경이 순결하지 못하고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용납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양심은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용납하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양심은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 전에 당신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성경과 복음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으면서도 마음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양심이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습관이 되자 양심은 완전히 악해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자에게 “귀고리를 하고 여자처럼 화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이 더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짓는 죄로 인해 그 사람의 양심은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굶주리고 있는데 돈이 생기면 술만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족이 음식을 사먹을 돈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 일이나 신경 쓰라.”

고 할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죄로 인해 그 사람의 양심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죄로 약해진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은 죄들이 이제는 양심에 걸리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허용하고 그로 인해 죄가 습관이 되어버려 양심이 약해졌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시면 이제는 전에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이 양심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이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불신으로 더러워진 양심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딤후 1:15)

양심은 죄를 용납하므로 약해지기 시작해서 불신으로 인해 완전히 더러워지게 됩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면 거짓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를 믿게 됩니다. 바른 것을 믿지 않으면 틀린 것을 믿게 됩니다. 자신의 양심을 죄에게 내어주어 결국 양심이 완전히 더럽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더럽혀진 양심은 뒤틀리고 왜곡되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로 더러워진 양심은 더욱 심한 더러움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용납한 양심은 또 다시 죄를 용납하게 되고 그러면 양심은 더러워지게 되며 더 강하고 자극적인 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것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양심

이 죄에 한번 굴복하고 나서 반복해서 죄에 굴복하게 되면 일상적인 죄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더 더럽고 왜곡되고 변태적인 죄를 추구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더러운 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를 막는 양심은 이미 더러워져서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부추기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진리를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 큰 죄로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하나님을 이미 정죄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18).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28). 그 결과 그들은 온갖 가증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본성에 거슬러 끔찍한 범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죄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간음을 하고 일요일 오전에는 태연하게 찬송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양심도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양심이 더러워진 이유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 뜨거운 인두로 지진 양심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

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딤페전 4:2)

인간의 신체 중 가장 예민한 곳 중 하나는 혀입니다. 혀는 단것과 쓴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짠 것과 신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음료를 마시다가 혀를 데면 더 이상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혀가 감각을 잃으면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죄와 놀아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구분하거나 경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깊고 왜곡된 죄로 빠져들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 양심은 뜨거운 인두로 지진 것과 같아지며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량학살을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부모나 사회를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해 놓고도 술집에 가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사람은 그런 일을 해도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령님께서 양심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4. 가책을 받은 양심

양심은 죄로 인해 약해지고 불신으로 인해 더러워지며 그것이 지속되면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됩니다. 이제 뉴스에서는 더 이상 일반적인 죄는 보도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죄는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죄들만이 기사화되는 것

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죄로 더러워져서 어지간한 뉴스로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인두로 지진 것같이 되자 그들의 도덕적 기준도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잡지에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나와도 그것이 자극적이라거나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양심이 인두로 지져서 마비되고 나면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언어의 질도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양심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엇인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들고는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요 8:9)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유죄를 선언하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는 유죄이며 더러우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지적해 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날은 하나님께서 저의 양심에 가책을 주신 날입니다.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것에서 구원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긍정적인 장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장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서 하나 둘씩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양

심의 가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바르게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계속해서 죄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결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떠나 버리면 결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5. 약한 양심

예수님께서서는 양심에 찔림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고전 8:10-12)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의 양심은 약해져서 성령님께서 하신 책망을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나 목사님의 생각쯤으로 여기게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도 그것을 하는 것을 보니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

며,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신 성령님의 책망이나 목사님의 설교도 사실은 그저 자신의 감정의 동요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그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는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신에게 주신 성령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본 양심이 약한 형제는 그 영향을 받아 당신과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말끔히 지워버린 것과 같습니다. 즉 당신이 약한 지체들 앞에서 잘못된 간증을 보이면 당신은 성령님께서 그 약한 지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싶거든 집에서 설교와 반대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면 당신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그가 설교하는 것은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6. 깨끗해진 양심

하나님께서 양심에 가책을 주심으로 찢림을 주시고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설교를 통해 그러한 찢림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히 9:14)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불렀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의 피가 그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 줍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양심이 새로운 것으로 되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날 당신 삶의 모든 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도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변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극도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양심이 다시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해지게 되고 지날 세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았을 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고 처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없이 하던 일들이 이제는 도저히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

니다. 제 양심에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마 그들의 양심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과 내면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7. 완전한 양심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히 9:9) 10장 2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구약성경의 희생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의도하신 대로 기능하는 양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소망도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에 완전히 동의하는 양심입니다.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양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십계명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고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하신 그 어떤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집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이면서 동시에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침례

나 세레나 유아세레나 물 뿌림을 받거나 헌신하거나 재헌신하거나 서원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신유의 체험을 하거나 천사를 직접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러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다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무엇을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않으면 당신의 양심을 결코 깨끗해 지거나 완전해 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 “나는 내 행동을 바꾸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종교적인 행동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고 따라서 양심이 깨끗하게 씻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씻기면 당신은 살아있는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종종 잘못된 것을 행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8. 완전한 양심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양심은 악해지고 더럽혀지고 뜨거운 인두로 지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양심에 가책을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깨끗한 양심이 하는 다섯 가지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양심은 당신이 완전한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줄 뿐입니다. 완전한 양심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이러한 양심이 없다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슬프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낙스 형제님, 저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밍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님,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형제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한 양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conscience toward God)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 나”(벧전 2:19)

완전한 양심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완전한 양심은 고난과 반대와 어려움과 부당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완전한 양심은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침뱀음을 당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완전한 양심은 온갖 박해와 비판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제가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완전한

양심은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줍니다. 완전한 양심은 당신에게 부당하게 대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도 그러신가요? 저는 주님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도 그러신가요? 만일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저는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나 배반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배반하고 팔아먹는 사람을 저는 친구라고 불러야 합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을 따르면, 저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제가 열 명의 환자를 고쳐주면 그 중 아홉 명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가버릴 것입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환호하며 저를 위해 자신들의 겂옷을 벗어서 그 위로 밟고 가라고 하다가도 저를 죽이라고 소리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완전하다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닌 나 자신의 행동과 그것으로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9. 완전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실족하지 않게 한다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행 24:16)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완전한 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옳으시고 저는 틀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저의 인생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완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서 주신 양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건, 날마다 인터넷으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건, 밤마다 골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오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심을 통해 무엇인가를 지적하시면 그것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지적을 무시하지 말고 다루십시오.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한 상태로 있도록 힘쓰십시오.

10. 완전한 양심은 선한 양심이다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행 23:1)

완전한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잘못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입니까? 실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속

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다른 성장 속도에 맞춰 서로 다르게 대하고 계십니다.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다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하나님과 견습니다. 따라서 당신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똑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혹은 아직 무엇을 보여주지 않으셨는지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아직 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당신은 알 수 없고 그것은 당신의 일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일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그들을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긴 머리를 하고 찢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찢어지지 않은 바지를 입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그 형제는 지금 먼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대로 그 사람을 다루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서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면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양심에 지적해 주신 그것을 당신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양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각자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시험에 대해 공부해야지 다른 사람의 시험을 대신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11. 완전한 양심은 순수한 양심이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딤후 1:3)

완전한 양심은 순수한 양심입니다. 순수한 양심은 주일에만 하나님을 따르고 나머지 육일 동안은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순수한 양심은 세상의 철학이나 심리학과 혼합되지 않은 양심입니다. 순수한 양심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것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양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은 거부하는 게 순수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지어내서 성경에 추가한 규칙들을 따르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반드시 흰색 셔츠만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목사가 색깔이 있는 셔츠를 입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으로 저를 괴롭게 할 생각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순수한 양심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한 분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규칙이나 명령과 같은 다른 불순물을 섞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 당신의 집까지 따라가서 감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집까지 따라가서 당신을 지켜 보실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양심을 통해 지적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지적하실 때 당신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양심을 순수하게 지킨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양심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참견할 수 없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12. 완전한 양심은 증언하는 양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고후 1:12)

완전한 양심은 증언하는 양심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심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

다. 자신이 전하려는 복음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양심이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당신의 양심은 당신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항상 지켜왔다는 것을 당신의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이렇게 증언해 준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고 싶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살아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양심에 반응하십시오.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양심을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양심이 바르게 일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면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양심은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5.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전 13:11-13)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구원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로 함께 모인 데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만일 독자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

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불 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거기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과 극심한 고통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지옥을 피하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기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것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가지는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는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어린 아기들만 가득합니다. 가정에 어른은 없고 아기들만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 성도들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집사들이 되고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1. 어린 아이들의 특징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린 아기의 특징은 완전히 이기적이며 100퍼센트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울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안아달라고 울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 때도 있고 그저 자기를 봐달라고 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 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아기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모든 아기들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성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했다” 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말합니다. 또 “아이처럼 생각했다” 고 합니다. 아이는 항상 자신의 유익과 관심사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린 아이의 일들, 즉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아이들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식사를 했는데도 과자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장난감을 사줬는데도 또 다른 장난감을 더 사달라고 조릅니다. 이미 가지

고 있는데도 비슷한 것을 또 사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결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에게 해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해 주지 않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느냐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더 많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미 있는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불평해야 하는지 불평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더워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너무 빨라요. 너무 느려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사랑이 충만한 부모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이들을 섬깁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무 살이 되고 서른 살이 되고 마흔 살이 되고 쉰 살이 되었는데도 이런 불만을 토로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요.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기들을 위한 유아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유아실도 필요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이였을 때 아이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항

상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만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었으면 했던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 보면 서로 더 큰 것을 먹겠다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의 것이 조금이라도 크면 불만을 터뜨립니다.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은 신경 써주고 자신은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과는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는데 자기와는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처럼 말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불평하거나 누군가 자기 자리에 주차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난 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았고, 그 자리에 주차했으니 그 자리는 자기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항상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불평과 불만과 이기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왜 범죄에 빠지고 감옥에 가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키워야 할 엄마 아빠도 아직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일과 야망과 돈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잡한 생활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오직 나만 생각하는 다섯살짜리 제멋대로인 기독교인인가?”

어렸을 때 동네 애들끼리 야구를 하다 보면 포지션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투수를 하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자신이 하지 못하게 되면 울면서 집에 가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찬양 인도자를 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시켜주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자신이 반주를 해야 하는데 시켜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가고 맙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계기로 교회를 떠나 놓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영적 아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것인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옷을 입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돌보지도 못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지 이십 년, 삼십 년, 사십 년, 오십 년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 년, 십 년, 십오 년이 지났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숙한 옷차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밤에는 무섭다고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무 살, 서른 살 먹은 사람이 무서워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간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영적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다른 사람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가지고 와야지만 병이 낫는 기도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는 한번도 영적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쉽게 미혹되는 사

람들로 교회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2.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이제는 성경을 다섯 군데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에 필요한 다섯 가지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벧전 2:1-3)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기들이 순수한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젖을 찾습니다. 자기 전에도 젖을 먹어야 잠이 듭니다. 일어나서도 바로 찾는 것은 젖입니다. 한 낮에도 젖을 찾습니다. 방금 젖을 먹은 거 같은데 또 젖을 찾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목사끼리 모이면 은근히 서로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들은 대

개 자신의 교회에 몇 명이나 모이는지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신자들이 수없이 더해진다고 자랑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복음이 전하고 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이 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을 전할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영적 아기들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아기들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지를 자랑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아기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훌륭한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낳은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 훌륭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기들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심으로 영적 성장을 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사람에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교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신의 자녀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으신 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과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아기는 항상 순수한 젖을 사모합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젖을 찾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저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성경을 찾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혼을 먹이는 일이고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영적 성장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강제로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이전에 한 설교를 기억해 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주에 한 설교도 잊어버립니다. 좋은 설교였는데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 년 전에 본 축구경기는 잊어버리지 않습

니다. 누가 전반 몇 분에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상세하게 기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설교는 기억나지 않는데 축구경기는 기억나는지 아십니까? 사모함의 유무가 그런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3.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한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엡 4:11-12)

만일 성도들이 완전하다면 사역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면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들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총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13-15절)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만큼이나 그 믿음도 다 제각각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기독교인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 다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를 좋아했다가 저 목사가 좋다고 따라갑니다. 이 성경이 좋다고 했다가 저 성경이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단 한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을 목사 겸 교사로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은사를 받은 목사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성경을 배우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4.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서로가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살후 1:3-4)

당신은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것은 바로 핍박과 환난입니다. 학교에서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내용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좀 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그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는 더 무거운 걸 들어야 힘이 세지고 근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법칙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낙담과 문제와 원수들과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비방하는 사람들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알아 가고 배워갑니다. 우리가 예

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온갖 문제와 원수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문제와 원수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갖 문제와 핍박과 환난과 가슴아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기 위해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환난이 있어야 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폭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폭풍의 바다를 향해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젖을 사모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바른 것을 하게 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모

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이들은 놀고 싶어 하지 일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숙제를 하거나 집안일을 돕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집안을 치우기보다는 어지럽히는 게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는 법을 몰라서 놀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계속 놀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대로 하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할 것입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다 해 준다면 아이는 결코 그 일을 배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아이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악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켜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선한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고난을 제거해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영적 아기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어깨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발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이며 당신이 평생 영적 아기로 머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다면 당신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5.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벧후 3:18)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고 독립침례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더 인용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도 큰 유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한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는 고장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게는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대로 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병원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대환난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교리적 차이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술집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사는 곳에 독립침례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살고 죽는 것에 아

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술집에 가는 겁니다.

당신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배운 것들을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없이 일하러 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타락한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담 이전에는 지구에 누가 살았는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강의한다 해도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이웃은 유대인이 대환난 때 광야에서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웃은 당신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나 되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만큼이나 복음을 막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선생님, 애가 제 머리를 잡아당겨요.” “선생님, 애가 장난감을 혼자만 가지고 놀아요.” 교회에서도 비슷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저 상처 입었어요.” “목사님, 저 형제는 저에게 인사하지 않아요.” 영적으

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잘 지내지 못한다면 천년왕국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의 대속과 재림과 믿고, 하늘나라와 지옥과 심판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혼자 성경만 볼 겁니다. 저에게는 다른 구원받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본적인 교리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알고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알고 계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는 그 말씀이 당신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당신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들에서는 이런 식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들에 대해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건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당하는 이유는 전하는 방법이 잘

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거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죄와 판단의 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엉터리로 복음을 전해놓고 자신이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그저 소리만 지르셨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죄인들이여, 만일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와 대화를 나눠보겠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문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와 동시에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6.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 (마 6:24-34)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영양분을 주시면 백합은 땅에 뿌리를 박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랍니다. 백합은 자신이 왜 백합인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백합으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위해 비를 내려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바람이 필요할 때는 바람을 보내주시고 고난이 필요할 때는 고난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백합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견뎌내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무엇보다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서는 백함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당신도 성장하게 하시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아직 우리를 온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아직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한다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아름답게 빛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섯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주님과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대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가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6. 겸손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읽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했는데 성경이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봤을 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보다는 성경이 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불교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불교신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불교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제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저에게 유익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에 대해 살펴 볼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면 공산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타락하게 된 것이 어떤 죄 때문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왕좌 위로 올라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겸손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함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합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상태가 바로 겸손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목사 개인의 견해나, 우리 교회만의 교리나, 침례교의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계속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읽는 것입니다.

1. 겸손은 명령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벧전 5:5-7)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겸손은 영적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게 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겸손과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미래를 자신이 어떻게 정하셨는지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작업은 저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빌 2:8)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 전에 예수님처럼

럼 먼저 겸손해 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겸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면 어땠겠습니까? 다시 베드로 전서 5:6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겸손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 겸손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죄는 속임수로 가득하며 육신은 악하고 인간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든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 겸손해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 겸손해지는 길을 택한다는 점입니다.

7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겸손에 대한 문맥에서 나왔을까요? 겸손과 염려와 주님의 돌봄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교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잘 생겼는지, 잘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령했는지, 얼마나 큰 교회를 인도하는지 등을 자랑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교만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자랑이 교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좀 더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교만까지도 훑어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 염려를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제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자기 자랑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교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겸손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신을 낮춰야 할까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준에 의하면 만일 제가 주님 없이 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교만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 고귀한 것입니다.

4. 스스로 겸손하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약 4:10) 당신은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과 크기와 종류와 나타나는 형태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언젠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아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겸손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며 자신의 겸손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러한 겸손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거짓 겸손에 대한 예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설교자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초청되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단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설교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자신에 대해 장황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한 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겸손하다고 생각하도록 하면서도 여전히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5.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하매”(마 18:1) 여기를 보시면 제자들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를 놓고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마 18:2-4)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더 대접받아야 하고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망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의 밑 바탕에는 야망과 욕망과 이 세상에서의 목표와 경쟁 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러한 것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얘기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미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최고가 되어야 하고, 일 등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 저는 언젠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 우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에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일등과 최고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검(Sword of the LORD)〉이라는 기독교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목사들의 설교와 글을 실으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목사를 소개합니다. “그는 가장 많이 알려진 목사이다” “가장 신실한 설교자이다” “가장 훌륭한 사역자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목사를 소개하는 것은 육신을 높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적당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6.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 ‘랍비’ 나, ‘선생님’ 이라고 불리는 것을 책망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11-12)

성경은 당신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는 당신을 높여 주실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신을 높이면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실 것도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형성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아가 튀어나올 때마다, 교만이 튀어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튀어나올 때마다,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7. 다툼은 교만에 의해서 옵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리석은 자처럼 잠깐 말하겠다고 한 것처럼 저도 어리석은 자처럼 잠시 말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갈라지고 조각나고 찢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일을 통해 확실하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잠 13:10)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이나 행한 것이나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게 되면 교만이 오고 결국 다툼이 생깁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다툼의 원인 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마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로 한 것이라면 주님께는 아무런 영광도 돌아가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면 우리는 반드시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럽에 등장해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짐승처럼 죽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모래에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16이 진리인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는 말씀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겔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

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교만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자신이 그래도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당신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생긴 적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눅 17:10)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육신과 자아에 자부심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열심히 찾고 신실하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세리를 정죄하지 않았습다. 단지 자신이 그 세리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가…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눅 18:11) 라고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었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악한 죄인이었고 온갖 중

류의 끔찍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저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저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SIN)의 중심에는 내(I)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을 통해서 는 주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8.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역대기하 7장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대하 7:14)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백성들이 킹제임스성경을 믿으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백성들이 세대주의와 전천년주의를 바르게 알고 가톨릭과 이단들의 오류를 알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가장 먼저 와야 할까요? 그 이유는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들으심 사이를 막는다면, 우리와 그분의 용서 사이를 막는다면, 우리와 그분의 기도 응답 사이를 막는다면, 우리와 그분의 얼굴을 구하심 사이를 막는다면, 우리와 기도 사이를 막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겸손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9. 겸손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역대기하는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역대기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이르되,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매”(대하 12:6)

이 말씀의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원수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포위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소식을 듣자 스스로 겸손히 행하면서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 던져버리시는 주님은 의롭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해지자,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범하든 간에 죄는 죄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 자신일지라도 주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주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이러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셨으므로 주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구출하여 내 진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 붓지 아니하리라.”

멸망이 선포되었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해졌고 주님의 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벌을 취소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을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의를 인정하고 주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기로 하신 진노를 취소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교만은 그것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겸손히 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벌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거나 어려운 일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실 때, 당신이 주님께 따

지거나 논쟁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보다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러십니까? 저기 저 형제는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는데 차라리 저런 사람을 벌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주님, 천주교와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야지 왜 저에게 주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고난을 주실 때 당신은 주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주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며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께서 만일 저를 멸하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서는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벌을 주신다 해도 저는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저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벌을 주실 때에도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과 자기 의를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무신론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이나 듣자고 당신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모두 옳으며 주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큼이나 나쁜 것을 주실 때도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벌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행한 대로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저는 진작에 지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은행을 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행한 대로 저를 심판하셨다면 저는 진작에 지옥에 갓어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저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주님께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멸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주일에 삼 일을 교회에 나오고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 외에 다른 희망을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10. 악한 사람도 겸손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기하 34장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에게 너희는 고하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되 곧 유다 왕 앞에서 그들이 읽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가져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들 손의 모든 일로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곳에 쏟아져서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또 너희를 보내어 주에게 여쭙게 한 유다 왕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되, 네가 들은 말들에 관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네가 들을 때에 네 마음이 연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며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네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네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과 바로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매 이에 그들이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니라.”(대하 34:23-28)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지은 죄를 없애거나 주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번에는 역대기하 3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성경은 13번에 걸쳐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13번이나 죄를 짓게 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겠습니까?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십이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 즉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과 같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들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하신 곳이더라. 또 그가 주의 집의 두 뜰에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대하 33:1-5) 므낫세는 성전에서 마귀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때를 살피고 요술을 쓰고 마술을 쓰며 부리는 영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또 그가 조각한 형상 곧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에 세웠는데 이 집은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발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정해 준 땅에서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모세의 손으로 준 온 율법과 법규와 규례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신 곳이더라. 이와 같이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교도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도록 하였더라.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니라.”(6-10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절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매 이들이 므낫세를 붙잡아 가시들 가운데 넣고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가니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매 그때에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11-13절)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악한 므낫세를 받아주셨다면, 당신 중 누구를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 겸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받아 주실 겁니다. 저는 독자 중에는 므낫세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므낫세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면 당신은 얼마나 더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출 10:3)

므낫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둘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해 집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7. 인 내

사람들은 종종 설교자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비난이 하고 싶다면 오늘이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독자 중에 인내에 대한 성경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만일 자신이 인내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을 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볼 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당신 중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눅 21:19) 우리는 모두 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인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내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다섯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모든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모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구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온통 구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모든 구절이 구령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령(soul winning, win soul)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약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말입니다. 구령이라는 말은 잠언 11:30에서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구령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번만 나오지만 인내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1.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인내입니다

4.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문맥을 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후 6: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3절) 우리는 함께 섬기고 있고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

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4절)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입증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바로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저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인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바로 잡히지 않고, 빨리 성장하지 않고, 빨리 겸손해지거나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디게 성장합니다. 만일 강제로 빨리 성장하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반발할 것이고 사역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양떼를 인도해야지 몰아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목회를 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인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고후 12:11)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훌륭한 사도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그가 다른 어떤 사도에게도 뒤지지 않는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12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도 바울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방언과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는지도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교회와 사역의 규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면서 첫 번째 증거로 자신의 인내를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하면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 아닌 인내였습니다. 인내는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역자의 가장 큰 덕목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인내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3.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내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들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골 1:9-10)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합당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11절) 하나님

께서는 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인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 다른 게 제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인내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교통사고가 인내의 부족으로 일어납니다. 단 일초, 일분, 한 시간,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은 인내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불평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교회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불편한 것은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인내하고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4. 교회를 인도하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딤후 3:1-3)

감독은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떼와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없이는 교회를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성경의 핵심 주제는 왕국과 인내입니다

계시록 1장도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자주 읽어보셨겠지만 이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겁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계 1:9)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왕국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이며 누가 왕좌에 앉을 것이며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며 누가 통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왕께서 돌아오시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주제인 왕국과 함께 인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천년 간이나 자신에 대한 모독을 참으시며 기다

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모욕과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신 분께서 평화와 사랑과 조화와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왕좌에 앉아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이 살해당하고 핍박 받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속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왕이신 분께서는 인내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다면 우리도 그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사도의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인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인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감독의 자격 요건 중 하나도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6.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매우 잘 아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 아십니다. 성경에는 인내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

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롬 8:23-25)

성경은 우리가 어느 날 들림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이 썩을 몸이 변화되어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아프지 않고 고통 당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다시는 그 어떤 형태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과 죽음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곳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온갖 고통을 주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로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습시다.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시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집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7.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과 인내를 통해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총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히 6:11-12)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약속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언제 하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주님을 섬긴 후에 인내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증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히 10:35-36)

아마 독자 중에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고 주님을 오랫동안 섬겨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아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을 섬기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인내해야 한다면 권면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즉시 결과를 보여주시고 보상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려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지만 전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보상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에 만족하셨지만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이 세상에서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열매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나서야 볼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시간 낭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시간 낭비를 한 게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수고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모든 것의 결과를 보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수고를 보상해 주실 겁니다.

9. 우리는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엮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히 12:1)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섬기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지 몇 주나 몇 년만 주님을 섬기면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우리가 언젠 구원받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 전부를 주

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백 미터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게 아니라 마라톤에 참가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백 미터를 전력질주하고 뺏어버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뛰는 마라톤 선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매일, 매 시간, 한 걸음씩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시간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꾸준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지금 온 세상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겠습니까?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형제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을 비웃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려면 쉬지 않고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보다는 쉬면서 도끼 날을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던 겁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다만 당신이 참가한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신은 인내

로 경주해야 합니다. 지속되지 못하는 신앙만큼 간증을 망치는 게 또 없을 겁니다.

인내로 경주하십시오. 매일 매일, 하루 하루, 결과를 보지 말고 쫓대를 보고 달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천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달리십시오. 매일 달리십시오.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달리세요.

10.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까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롬 5:3-4)

어떻게 인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를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사역자를 원하십니다.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인내하는 설교자를 원하십니다. 인내하는 아내를 원하십니다. 인내하는 남편을 원하십니다. 인내하는 아빠와 인내하는 엄마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인내가 아니라 환난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성장에 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싫어해도 성장에 필요한 음식은 반드시 먹게 하는 게 바로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내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내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를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환난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인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는 환난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겁니다.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드러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나 아도니람 저드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기는 환난과 승리와

고난과 승리와 어려움과 승리의 연속입니다. 산의 정상에 올랐다가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일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들의 사역의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인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의 비결은 그들이 받은 환난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있으려면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내와 그것을 이루는 환난을 거부하거나 피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과 인내 넘어 있는 모든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롬 5:3-4) 아멘.

성경은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은 그 자체로 기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암을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는 인내가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등장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시려고 일하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터널이 기쁜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 나오는 햇빛이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인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며 참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게 하기 위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인내가 없습니다. 육신은 환난은 고사하고 불편한 것조차 참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련한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배반당함과 거짓 고소를 당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군가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전에 항상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모두 환난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환난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다루실 겁니다. 따라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실 겁니다.

11. 성경을 통해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통해 인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롬 15:4)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를 얻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인내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려고 그들에게 환난을 주셨을 때 그들이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성경 읽기를 그만둡니다. 사실 가장 성경 읽기가 필요한 때가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도 말입니다.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따라서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으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5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주시기 위해 환난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도망치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면 인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고 결국 인내를 주실 것입니다.

12.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룹니다

아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약 1:2-3)

성경은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단련”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환난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단련은 그의 아들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므로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물로 드려도 다

시 그와 함께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양으로 예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시험 받는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그만 두거나 문제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믿음이 단련 받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과 믿음의 단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힘들지 않은 운동은 없습니다. 매번 더 강도를 높여서 훈련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믿음의 단련이 없으면 인내도 없고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아마존 밀림의 선교사로 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네가 레바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아마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당장 짐을 싸서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나라.”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교회에서 조금 덤거나 불편하거나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하는 것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시키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작은 불편도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불편을 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조지 물리는 67세가 되었을 때 이미 고아원 사역과 문서사역 등 여러 사역을 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좀 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아내에게 동의를 얻어 함께 아라비아로 가서 거의 30년 동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믿음의 단련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인내를 이룬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독자 중에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겁니다. 저는 어떤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나고 당신에게 일어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4절)

주님께서는 여기서 왜 우리가 인내를 이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 완전하고 완벽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완전히 이뤄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도망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13.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약 5:7)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수확하기 전에 함부로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 안 됩니다. 농부가 수확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듯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옳은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8-11절)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거두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옳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알고 주님께서 어떤 결말을 주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을 예비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인도에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8.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주제를 잘 공부하시면 신앙 생활과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종종 묻곤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

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민족이나 인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출생지나 부모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웃에 살 것인지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등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둘째와 셋째 측면은, 주님의 영적 계시, 그리고 특별한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첫째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에 대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칙을 밝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매우 분명하게 성경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에베소서 4:28에서 다음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것은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하게 계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단 다른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국가 권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고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지역 교회에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던 것에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거듭나기를 원하실까요? 침례 받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적인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실까요? 주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은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좀 더 실행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관련해서 성경에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시기 보다는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 걸을 수 있는 원칙을 주시면서 가끔씩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저를 스페인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네 가지 점검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요 7:16-17)

첫째,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왜 당신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 주어야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당신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오늘 당신에게 보여주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행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

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당신이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면 당신은 아프리카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뜻을 당신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둘째,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눅 16:10)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미 받은 빛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비춰주셔야 하겠습니까?

셋째, 이사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

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사 30:18)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때에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바로 알려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기다리게 하십니다. 정직하고 일관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넷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행 16:9-10)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영적인 경험이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 뜻을 행하려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더 구체적인 새로운 것을 알려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실패하는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대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진심을 믿고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것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머리로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실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브를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그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이브를 설득한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한 첫 번째 거짓말은 오늘날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꼭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불신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는 불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죄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불신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으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눅 17:5) 이것은 매우 훌륭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호흡과 음식물 섭취와 소화는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취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소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둘째 원인은 교만과 시기와 영적

야망 때문입니다. 이 세가지 악은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보통 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은 자신이 하기에 너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자신은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시기와 영적 야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위치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일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흠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흠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십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마 25:24-28)

마태복음 25장이 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

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30절에 보면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은사를 가진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은사를 사용해 주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은 자신이 작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이 이 무익한 종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과 같은 은사를 자신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너무 큰 영적 야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섬김도 그 자체로 작은 것은 없습니다. 영적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각자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혹은 작아 보이는지 상관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셋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빛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빛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빛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 보

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눅 7:41-43)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좀 더 핵심적인 것을 붙들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빛을 졌던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오십 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빛을 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중단되고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그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선택한 것뿐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을 우리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자신이 아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 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롬 12:1-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고 당신에게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알 수 없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모두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당신은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떠한 축복이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축복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마귀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도해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야 할지 잘 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한 것도 아니고 망쳐버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을 가장 제대로 사용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도와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9.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일 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행 11:26) 본문에 의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먼저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막 9:25-26)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자 마귀는 물러가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은 놓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을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귀중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마귀로부터 놓임을 받았고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구원은 분명 엄청난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로 받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1:26에서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가 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7)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란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손해가 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원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눅 9:23)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원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게 십자가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제 십자가를 졌어도 오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오늘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큼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은 당신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그 목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이 사람은 마귀 들렸다가 놓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속하셨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다시 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소유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이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로부터 놓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

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변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같은 장소에 가고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고 같은 옷은 입고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죄를 짓고 같은 방식으로 살고 같은 신(맘몬)을 섬기며 삽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기는 했지만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습니다. 주님에 의해 통제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는 원하지만 살아서 그곳에 걸맞게 살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교회에 나오고 십일조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할까요? 당신의 친척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당신이 항상 성경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신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할까요?

마가복음 9:27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본문을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사람이 마귀로부터 놓임을 받는 것과 일으켜 세워지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구원받았다면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다시 2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성경이 구원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좋지만 살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고 싶은 부분만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2. 셋째 출생

갈라디아서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갈 4:19) 갈라디아서는 “어린 자녀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거듭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고 합니다.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해산의 수고를 겪을 만큼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둘째 출생, 즉 다시 태어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첫째 출생이고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 둘째 출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다시 태어나서 둘째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고 둘째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을 다시 해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출생을 했는데 해산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출생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리적으로 셋째 출생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 거듭난 사람이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형성 되실 때까지 하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실 때까지 하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둘째 출생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나를 주관하는 주체가 바뀌는 일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던 것은 내 자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무력으로 내 안의 왕좌를 차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화적으로 주님께 왕좌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났으면 당신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다리와 발과 눈과 혀와 귀와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는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의 믿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즐깁니다.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의 첫사랑을 일주일가량 즐기기도 합니다. 한 달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일 년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성령님께서서는 다시 역사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 속에서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서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비참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을 내보려고 하지만 그때뿐이고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허무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교회에 오니 목사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한다거나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설교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둘째 출생을 주실 때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특별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에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궁금해합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쓰러지도록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절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절망을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일들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아직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당신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5:8에서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예수님께서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고난 받으신 일들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한다고 하다가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도망가 버립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는 원하지만 어떤 것도 포기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 없는 부활을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왕관을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득이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인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득과 그리스도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고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것도 행위로 되는 게 아닙

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이나 선행이나 규율 같은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빌립보서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헛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다시 이전의 헛된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면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가기를 원하실까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관하시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나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수님이 아닌 당신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수님이 아닌 당신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아닌 당신의 육신이 결정하기 때문

에 당신은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구원받을 때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을 신뢰했듯이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모든 구원의 문제를 그분께 맡긴 것처럼 다시 그분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아직 자신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달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라야 부활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미리 부활한 이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휴거가 일어날 때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우리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처럼 변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

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 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앞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꾀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사람들은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선교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가장 고귀한 부르심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의하면 누구도 구원받기 전에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늘나라로 가기로 예정되었다든지 혹은 지옥으로 가기로 예정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정에 대한 말씀이 네 번에 걸쳐 나오는데 모두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으면 모두 예정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예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관련이 있는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행위와 마음과 인격과 삶을 지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실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는 게 예수님께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1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형제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을 통해 온전히 배우셨습니다. 당신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들과 일들과 사건들은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은 모두 잊으십시오. 밤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게 한 일과 사람도 모두 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두 나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겪은 모든 일과 만난 모든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과거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도달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했다가는 오직 실패만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자신의 간증을 망쳐버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구원받았고 성경을 알지만 그리스도와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교회를 망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망치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도 가정을 망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망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당신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주관하셔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불행한 일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놓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로부터 해방하시고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던 당신을 일으켜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은 구원만 받은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사랑해 주는 그리스도인 남편입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남편에게 필요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잔소리나 하는 구원받은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은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 주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나 다니고 성경이나 인용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신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처럼 복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 안에 계신 분에 대해 알고자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 애 정(affection)

1. 구원받은 사람들의 애정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affections)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2-24)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갖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선행을 하거나 업적으로 남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매우 위험

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affect)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affect) 하려고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하는도다. 그러나 좋은 일로 열심히 사모함을(affect) 받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으니라.”(갈 4:17-18)

오늘 우리는 애정(affection)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5:24에 나온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they that are Christ’s)”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기 위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고 동시에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당신이 알건 모르건, 실감하건 실감하지 못하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인해 당신이 구원받게 되면 당신의 애착들과 정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성경은 “못 박았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의하면, 문제는 우리가 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점령하지 못한 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의 육신, 나의 육신의 애착들, 육신의 정욕들은 갈보리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죽은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 잘못된 애정(affection)이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잘못된 애정(애착)이 있다고 하고 18절에서는 좋은 애정이 있다고 합니다. 애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에 애정을 가지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에 애정을 가지면 나쁜 것입니다.

먼저 애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애정은 생각(mind)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본능과는 다릅니다. 애정은 열정(passion)과는 다릅니다. 열정은 현재의 즐거움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사모함

니다. 즉 무엇인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성향과 관련된 본능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를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추운 날씨를 잘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와 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본능적인 기질에 속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정은 아닙니다.

애정은 당신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본능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관한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애정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현재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애정이 아닌 열정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방식의 은사주의 집회는 애정이 아닌 열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애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정립합니다. 그러나 열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 말씀 자체를 즐기기는 하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설교를 듣고 즐겼을 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당신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삶에 적용시킨다면 당신은 애정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열정은 한 순간에 흥미를 보이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애정은 지속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

이 좋은 애정도 있고 나쁜 애정도 있습니다. 무엇에, 누구에게 애정을 보이느냐에 따라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에게 애정을 두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애정을 두었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음행에, 어떤 사람은 음악에, 어떤 사람은 유흥에, 어떤 사람은 남자 친구에, 어떤 사람은 여자 친구에, 어떤 사람은 이것에, 어떤 사람은 저것에 애정을 두고 살았습니다.

애정은 항상 생각을 특정한 대상에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든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것은 애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 십대에 주로 형성됩니다. 애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을 망치는 것은 열정(passion)입니다. 우리가 애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애정을 잘못된 대상에 사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애정을 두었던 대상에게 아직도 동일하게 애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끔찍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옛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여 애정을 차지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고 당신이 마땅히 애정을 두어야 할 새로운 것을 당신이 구원받는 순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고 마음 속에 간직하고 묵상해야 할 새로운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애정을 두어야 할 새로운 것을 당신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가 혼자 자유롭게 있을 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자신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을 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당신의 마음속을 점령한 것과 당신이 마음 깊이 원하는 바로 그 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형제 자매들에게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애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애정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땅히 애정을 두어야 하는 네 가지 것이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 우리가 애정을 두어야 할 첫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음악과 영상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매우 정교한 컴퓨터입니다. 어떤 것들은 한번 각인되면 4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먼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롬 12:10)

고린도후서 7장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고후 7:5-7)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affectionately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살전 2:7-8)

당신이 애정을 두어야 하는 첫째 대상은 바로 형제들입니다. 당신은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대상에 애정을 두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게 합당한 애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 항상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비참하고 슬픈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형제 자매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형제 자매들에게 애정을 두어야 하는데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이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시리아에서의 전쟁, 북핵문제, 혹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지, 좌파가 잡을 것인지 우파가 잡을 것인지, 이런 문제로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면 이러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도 됩니다.

당신은 형제 자매들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형제 자매들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이 받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섬긴다면 나머지 시간에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을 생각해도 그것은 전혀 죄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간교한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것은 죄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모습으로 위장을 한 것들이 이 세

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전혀 죄가 아닌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땅히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축구경기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축구경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죄입니다. 저는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형제들에게 애정을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간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떠나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합당한 애정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목록은 전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을 위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떠난 형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으나 아무도 떠난 형제, 실족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게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 집, 내 직장,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중요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집이나 직장이나 직업을 위해 기도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합당한 애정을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3.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애정을 주어야 할 둘째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딤후 3:1-3)

여기서는 본성의 애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을 로마서 1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흥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롬 1:21-32)

로마서 1장의 문맥에서 말하는 “본성의 애정”이란 무엇입니까? 남자는 여자와 함께 짝을 이루고 여자는 남자와 함께 짝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본성의 애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본성의 애정은 아니겠지만 본성의 애정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사람들에게 본성의 애정이 없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거나 애완동물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서 본성의 애정이 사라진다는 말은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본성의 애정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에게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주신 본성의 애정은 남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의 애정은 자신의 아내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입니다. 아내를 생각하고 돌보고 도와주고 보호

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란한 영화나 TV 프로그램이나 영상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한 것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자신의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두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문제는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것들에 잘못된 열정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매도 자신의 남편에게 합당한 애정을 보여야 합니다. 남편에게 합당한 애정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눈에 옳지 않게 보여도 그 말에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결혼한 자매들이 가장 빈번하게 짓는 죄는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자매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여자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백 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백 년 전에 진리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합당한 애정을 두고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비단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

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애정을 두고 여자는 남자에게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이나 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합당한 애정이 있어야 하는데 애정이 아닌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애정은 지속되는 사랑과 관련이 있고 열정은 순간적인 즐거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정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열정은 육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애정이 아닌 열정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때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외도를 하는 겁니다. 애정이 아닌 열정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으로 결혼하면 그 끝은 이혼입니다. 애정은 지속되는 사랑이지만 열정은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하나를 태워버리고 나면 태워버릴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방황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4. 하나님의 집인 지역교회에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역대기상 29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집사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감독하고 인도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가 곧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네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딤후 3:14)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지역교회를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지역교회의 회원들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은 아닙니다. 성경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건 지역교회건 항상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대기상 29장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affection to) 내 소유의 재물 곧 금과 은 중에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드렸노니”(대상 29:3)

우리가 합당한 애정을 드러야 할 세 번째 대상은 성경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지역교회입니다. 당신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역교회로 모이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찬양을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지역교회에 애정을 두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것에 애정을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애정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애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요일 오전에 갈 만한 곳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 시간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으로 인

해 교회에 왔다면 잘하신 겁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애정은 전혀 없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는 명백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신약의 진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못 믿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한 재물과 신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이 소유한 것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렸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과 애정이 하나님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바른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재물보다 당신의 태도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윗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 애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의 애정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물을 다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렸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오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집에 애정을 두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를 받으시니

다. 저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5. 예수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affection)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골 3:1-2)

성경은 당신에게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mind)을 강제로 바꿔주지 않으실 겁니다. 강제로 당신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강제로 당신이 바른 것을 원하도록 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다만 당신에 어디에 애정을 뒀어 하는지 말씀하시고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책을 책상 위에 둘 수도 있고 장롱 속에 넣어 둘 수도 있습니다. 책을 어디에 두느냐는 전적으로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애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과 애정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애정을 두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이러한 것 중 하나이라도 애정을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만큼 세상적인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에 애정을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이러한 것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비참할 정도로 극도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애정을 두라고 하셨는데 누군가는 이러한 것에 애정을 두지 않겠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옳은 것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늘나라에 대해 찬양하고, 거듭남에 대해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에 대해 찬양하고, 주님의 구속에 대해 찬양하고,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일주일 내내 이러한 것들 것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에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전혀 읽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바르기를 원하고 목사도 바르기를 원하고 교리도 바르기를 원하지만 자신은 바르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셨습니까? 당신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셨습니까? 당신의 애정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애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애정을 두어야 하는지, 즉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당신은 형제 자매들에게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애정을 두어

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순례의 길을 마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으며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는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두어야 할 것들에 애정을 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11. 하나님을 기다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목회를 베테랑 목사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

랜 목회를 통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서두르라고 다그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구원하라고 재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명령하는 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최선의 시간이라고 판단하시는 때에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하나님께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께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당신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분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은 공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전혀 아버지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전혀 주님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제가 아픈 것입니까? 왜

저에게 돈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진행되었어야 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때에 제대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엄청나게 다행일 겁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화를 냅니다. 차가 늦게 오면 화를 냅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늦게 반응하면 화를 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고객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접대해야 하는 종업원인 것처럼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씹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즉석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세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3편을 보겠습니다.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 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wait, 기다리나이다).”

(시 123:1-2)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의 인생은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소유한 모든 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종은 무엇을 하려거든 주인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허락하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으려고 해도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입으려고 해도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은 무엇 무엇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이 명령을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를 보고 값을 치르고 사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사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지식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상 주심과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

니까?” “오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한번 지난 세월을 회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당신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뜻대로 한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은 모두 결국 열매 맺지 못함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건 당신의 일이건 당신의 뜻과 방법대로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종으로서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시편 130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내 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내가 말하거니와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시 130:5-6)

군대에서는 밤에도 보초를 서야 합니다. 새벽 3시부터 기상 직전인 5시

반까지 깨어서 보초를 선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발은 무게를 지탱하면서 균형을 잡고 서있기도 힘듭니다. 졸음으로 인해 정신도 혼미해집니다.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보초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자신의 보초 시간이 끝날 때인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 아침이 밝아오듯이 주님의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림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짐승이 음식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기서 새들과 물고기들과 야생 동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에 대해 말씀하신 후 27절에 와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적당한 때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를 바라나이다(wait, 기다리나이다).” (시 104:27)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용어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본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짐승들이 생존하면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본능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해주셨기 때문입

니다. 새가 하늘을 날고 동지를 짓고 새끼를 돌보고 싸우고 숨고 생존하는 방법을 아는 이유는 지능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신이 새나 곰이나 벌레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짐승들처럼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짐승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들과 들의 꽃들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마 6:25-32)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면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는 왜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종이 주인의 지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파수하는 자가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경에서 다섯 구절을 찾아보면서 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시 적 없습니까? 아이들은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은 모릅니다. 아이들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왜 밥을 주지 않는지 의아해할 뿐입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누구고, 정치인이 누구고, 물가가 어떻게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신앙 생활에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더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도록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막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안식하고 위로 받고 평안을 누리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며, 그리하실 이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will wait, 기다리이다).”(렘 14:22)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첫째 이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

다. 당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가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첫째 이유는,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채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쁨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용기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봤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구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아무리 바라봐도 소용이 없었다구요?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내 포기하고 실망합니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주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때로는 기다리다 보면 시험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기다려도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할지

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포기한 지 삼십 분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결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다른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루이지애나 주(州)에서 철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철도 레일 위에서 작업하다가 기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레일을 가로질러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때에 일하시기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가 바로 주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5.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wait,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28-31)

하나님은 지치거나 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지친 적은 없습니까? 죄와 싸우다가 지친 적은 없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다가 지친 적은 없습니까? 더 이상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갈 6:9)

6. 주님께서 제대로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잠언 20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wait, 기다리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잠 20:22)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에게도 악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악한 일을 당하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다시 그대로 갚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도 다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대로 다시 갚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갚아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악을 스스로 갚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갚아주셔야만 제대로 갚을 수 있습니다. 둘

째, 주님께서 갚아주셔야만 제대로 된 대상에게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오인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갚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갚으셔야만 제대로 된 대상에게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시므온이라는 자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 다윗을 비웃고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중 하나가 나와서 당장 시므온을 처단하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말렸습니다. 시므온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 스스로 그 일을 한 것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욕하고 속이고,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당신도 그대로 보복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한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짓을 하도록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악을 행할 때 당신이 할 일은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로 인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을 불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려고 기다려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정하신 때에 행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응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복수하시고 응징하시고 징벌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고 의롭게 응징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7. 주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혼에게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우리의 원수를 제대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택시도다.”(애 3:25)

하나님은 선택하신 분입니다. 주님께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위로와 인도와 참된 교제와 보호와 힘과 양식과 참된 의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약 1:17)

하나님께는 많은 선물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적절한 때에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좋은 것들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당신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당신이 행복해 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축복받는 삶

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당신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기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당신이 기쁨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에게 행복과 축복과 기쁨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당신에게 주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좋은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당신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서 주님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당신은 영광 중에 받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천년간의 혼인 잔치가 열릴 겁니다. 저에게는 새 예루살렘에 저택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저는 왕관과 귀한 보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8. 죄로 인해 깨진 교제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구원받기 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돼지 우리에게 있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돼지 우리에서 즐기던 몇 가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지 일년, 삼 년, 오 년,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지난 이십 년간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것들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아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임신한 게 무효가 되지 않고 아기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갈 6:7-9)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한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사 8:17)

당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당신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것 같이 보일 때, 주님의 문을 두드리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계속 두드리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8)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구해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찾아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두드려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독자 중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죄를 지으면 당신의 죄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막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은 문을 두드리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당신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실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 주실 것이고 교제는 회복될 것입니다.

9.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대로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제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30장에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서는 기대를 하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달지도 못하였으며 눈이 본 적도 없나이다.”(사 64:4)

성경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인용한 것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

이사야서 64:4과 고린도전서 2:9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만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 “기다리는 자”라고 한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좀 늦게 응답하신다고 해서 다른 무엇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거의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인내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자신의 왕국을 떠나 먼 나라로 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은 떠나기 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종들은 왕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악한 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신은 잘 아실 겁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셨을 때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바른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 30:18)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때에 하실 겁니다. 당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을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2. 먼저 구해야 할 것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율가 살펴볼 구절은 33-34절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서는 썩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서는 썩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 일하면 네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네 눈이 악하면 네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 하리라.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mammon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 6:19-34)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 없고 심지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거나 입거나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것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만드신 새들에게 음식과 안식처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풀과 꽃과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입히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만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서는 새들과 꽃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의 창조물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물들과 창조자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새나 그 어떤 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못한 새들도 먹이신다면 왜 당신은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들에 핀 풀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풀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존재고,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풀들도 입히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복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로 인해 걱정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신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등한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일 제가 ‘당신이 청소를 하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제 말을 믿고 청소를 하면 부엌으로 가서 식사준비를 하지 않아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당신이 제 말을 믿고 청소를 하는 것은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당신이 제 말을 믿고 청소를 하면 점심시간에 굶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일 당신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엌에 가서 식사준비를 할 겁니다. “배가 고프는데 왜 청소를 해야 하나 식사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당신이 준비한 식사와 제가 준비한 식사, 이렇게 두 개의 식사가 준비되어 청소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두 개의 식사가 준비되어 낭비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이 제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낼 것이고 당신과 저의 관계

는 좋지 못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힘을 주님의 왕국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혼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지체들을 도왔는지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서 이러한 것들을 물으실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할 일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매할 돈을 버느라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느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일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불 속에 넣어 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써 가며 했던 일들이 나무와 지푸라기와 그루터기가 되어 불타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들여 한 일들이 활활 불타고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고 행한 일들의 열매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먼

저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복된 약속을 누려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옵니다. 모든 시간을 이용하여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1. 우리가 먼저 주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겁니다

다시 33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소홀히 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33절)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쟁이라면 우리의 혼을 구원해줄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당신과 저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의 탐욕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음식과 의복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딤펴전 6:8)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거나 좋은 차를 타지 못하거나 멋진 곳에서 휴가를 보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비해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먼저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을 섬기며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대부분 사람들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음식과 의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부가 아니고서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2.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하는 것(seek)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로마서 3장과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거늘”(막 1:36-37)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한 증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seek).” 이것을 로마서 3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seeketh) 자도 없으며”(롬 3:10-11)

성경은 마가복음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하고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과 로마서 3장은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seek)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었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요 8:21)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로마 정부를 뒤집을 수 있는 혁명가이자 저항군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췌값을 치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셨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좋은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요 1:12).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께 나아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동시에 그분을 섬기기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췌값을 치르고 죽으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계시며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분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당신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해줄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우리 가족이 좀 더 잘 살게 만들어 주는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왕들의 왕이신 분의 왕국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극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국을 만들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왕국에 손님으로 와서 복이나 빌어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분의 왕국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특히 선택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고안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주 사람들을 모아 구원해 주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구원받으러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강제로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3.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거기서 주 네 하나님을 찾으면 곧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신 4:29) 당신이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누군가 하나님을 입증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온 마음과 혼을 다해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께서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4.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야 하고 또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이야,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네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잠 2:1-6)

예전에 미국에서는 금을 찾으러 서부로 갔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 아내를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 아이들과 직업과 집과 전 재산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 산으로 강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욕구를 참았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 열심히 땅을 파고 굴을 파고 무거운 돌을 옮기고 큰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 추운 물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금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모든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금을 찾았던 것입니다.

서부에서 대량의 금이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금을 찾으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찾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해 강을 살살이 훑었고 온갖 종류의 기계도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찾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금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찾으러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고 알래스카에 가서 얼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노랗고 작은 고체로 된 물체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이 금을 찾듯이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금을 찾듯이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도 선물로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금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찾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할 것이며 우리는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치하는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만일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힘과 돈을 쏟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이 당신은 인생을 잘 못 산 것이고 낭비한 것입니다.

5. 헛되이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구하는 것, 즉 찾는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사 45:19)

하나님께서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우리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6:33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찾으라(seek)” 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너희(ye)” 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 누구 누구가 오늘 이 성경공부에 참여했으면 좋았을 걸.” “누구 누구가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설교자에 대해 속으로 “자거나 잘 하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당신 각 개인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오직 다른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입니

다. 다른 형제 자매가 무엇을 구하는지는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 각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놓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과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성경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당신 개인을 위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하시는 책망을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유는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썩어터진 부분을 찌르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바로잡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치료하여 온전하게 바로 잡아 주는 것입니다.

7. 무엇을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막 9:35)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에 내주면서 삽니다. 우리는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인 곳이지만 주님과과는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 영원한 곳에서 말째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말째가 되고 영원한 곳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첫째 자리에 둡니다.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첫째 자리에 두고 그것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첫째 자리에 뒤편에 두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물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눅 17:20-21)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우리가 이 왕국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당신의 육신은 당신의 모든 시간과 관심과 초점을 외형적인 것과 외모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소유에 써 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내적인 사람도 존재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한 이 왕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했을 뿐 영원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보다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옛 사람과 같 사람만을 위해 산다면 당신은 그 왕국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님의 왕국을 위해 사는 것은 그곳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9.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사 64:6)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의 의를 보고 좋다고 인정해줄 수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저와 당신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단 위

에 더럽고 썩은 걸레를 올려놓는다면 얼마나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와 동등한 의만을 인정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썩은 걸레를 내미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는 모두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빌 3:7)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33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8-9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인데 그곳에서는 우리 자신의 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미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롬 10:2-3)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삽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열심히 자신들의 교리를 전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집회로 모입니다. 그들은 매일 교제를 나눕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일체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하다고 믿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묻거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열심은 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의지합니다. 저는 제가 그들보다 열심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그들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아마 저는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과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이루신 일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0-21)

방금 읽은 구절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매우 단순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씻값을 스스로 치를 수도 없고 스스로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로 찾아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단 한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갈보리로 가서서 인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저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령님을 통해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의 죄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저의 죄로 인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씻값을 치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은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에게 주셔서 제 안에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저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33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제가 성령님께서 저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주시도록 내어 드린다면, 그래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서는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해 주실 겁니다.

제가 축복과 상급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당신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13. 날마다 해야 할 것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를 닦아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매일 일도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두 무엇인가를 매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매일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1편을 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긍휼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서원들을 이행하리이다.”(시 61:7-8)

1. 우리는 서원한 것을 날마다 이행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노래로 영원히 찬양할 것이며 서원

한 것들을 매일 이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구원받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고 주님께 고백한 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섬기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구절에 순종할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은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도서에서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한 서원을 매일 이행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한 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분들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한 분도 있을 겁니다. 특정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한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는 그러한 정욕에 자신을 내 주지 않겠다고 한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한 분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님께 서원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매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일년에 한 번씩 하거나 육 개월에 한 번씩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주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매일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주님과 약속했다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점심때는 무엇을 하고 저녁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매

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에서 우선순위의 첫째 자리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모든 날을 통해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과 의 첫사랑을 잃은 것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열정을 잃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말하고 다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얘기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예배 시간이 즐거웠을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즐거웠을 겁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시편 61편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빠지고 설교를 지겨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문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날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왜 주님을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에 따라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드러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 마음의 열매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는지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열심이 있었고 주님을 부지런히 섬겼지만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잘못되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거나 주님을 섬기라고 하거나 복음을 전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서원한 것을 매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서

원한 것을 매일 이행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것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만 당신은 더 이상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2.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benefits)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시 68:19)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번 은혜를 베풀어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그것을 통해 어떤 이익(benefits)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휴가비는 나오는지, 상여금은 얼마인지 따져보고 직장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당신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익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는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당신은 건강도 보장받았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눈을 잃고 팔을 잃고 다리를 잃어도 나중에 당신

은 다 돌려받고 온전한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 상관없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당신은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주님을 섬기면 당신의 일상적인 필요와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손해 보게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당신이 얻게 되는 영원한 이익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셔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주셔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게으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풍족한 물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의 지식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중 대부분은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이 주님께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교회에 오고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고 제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당신을 위해 하늘나라에 집이 있고, 소망과 위로를 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함께 경배를 드릴 형제 자매들이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모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이곳에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자 중에는 과거에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지금은 완쾌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지금은 하늘나라로 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충만한 생명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건전한 생각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왜 불평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당신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는 첫 사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86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 하나이다.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며,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오니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시 86:1-4)

우리는 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혼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 영원히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처음 우리가 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식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지금은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며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과 열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그 길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즐

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첫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보존해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대로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해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해 달라고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소유하게 된 믿음입니다. 제가 간구하는 것은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님께서 저를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역(faith ministry)”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구걸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해 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믿고 가르치던 사람이 교회가 커지자 변질되어 잘못된 길로 들어서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구원받고 한때는 천사처럼 살던 사람이 지금은 마귀처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돕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은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매일 간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믿음의 길을 버린 것일까요? 그들이 옛 본성에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당신의 마음도 공략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산다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첫 사랑을 저버리면 결국 당신의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불타버리고 당신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마음을 그대로 지킨 것이고 다른 사람은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인도대로 바른 길을 걸었고 다른 사람은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88편을 보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시 88:9)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들

이 나와서 우리의 앞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큰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과 같은 문제에 빠지지 않는 줄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리 크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릴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람들로 부터 보호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심에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5.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눅 9:23)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구원받을 때나 특별한 날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고 나서 당신의 옛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한 적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땅 속에 묻기 전까지 당신의 육신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주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당신은 매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육신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유명해지고자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육신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인 육신은 항상 자신을 자랑하려 하며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구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시

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멋대로인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면 제멋대로인 어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무게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속 사람이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당신의 뜻과 욕망을 부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육신이 사라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육신은 항상 육신입니다. 단 한번도 육신이 자동으로 영적으로 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당신의 육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육신은 더욱 추악한 육신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아내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남편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아이들과 부모님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달리다가 교회에 와서는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고 당신을 욕할 것이고 당신을 증오할 것이고 당신의 말을 왜곡할 것이고 당신을 비방할 것이고 당신의 부모님을 욕할 것이고 당신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러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끝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가신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6.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행 5:42)

사도들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에 대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어떤 날에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야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100kg짜리 역기를 들지 못합니다. 제가 왜 100kg짜리 역기를 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50kg짜리 역기를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기 위해서는 가벼운 역기를 들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어쩌면 한 달에 한 번, 어쩌면 일년에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매일 복음을 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한달간 매일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매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런 적이 없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끔찍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저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해요.” “저희 집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저희 남편은 복음을 전해요.”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만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

다.

7.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행 17:10-11)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나라에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매일 뉴스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어떠한 영적인 복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탐구한다면 당신은 뉴스를 보고 얻을 수 있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신문이나 뉴스를 열심히 봤더니 엄청난 영적 축복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었다고 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당신, 쓸데없는 것을 읽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것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을 듣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탐구했습니다. 성경을 살살이 찾아보며 연구한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금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당신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찾아볼 것입니다.

8.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행 19:9)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이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이

고 무례한 일은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것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게 무례한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게 불친절한 게 아니라 거짓을 용납하는 게 불친절한 것입니다. 거짓을 용납하는 게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성경과 다른 비진리를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사랑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친절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말을 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지옥에 가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친절한 것도, 예의 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가장 친절한 것이고 예의 바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과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9. 우리는 날마다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의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히 3:13)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날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서로 권면해야 하는 대상은 때로는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성경은 당신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권면하여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항상 우리를 죄의 속임수로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로 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게 속을 것이며 마음은 강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은혜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는 교제에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을 더 열심히 섬기도록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우리의 마음은 강박해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죄의 속임수에 빠질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강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날마다 첫 사랑을 유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날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4. 정결하게 됨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딤후 2:11-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자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

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의하면 동일한 주님께서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데리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구원하셨다면 당신은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모두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매일 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로 보이든 나쁜 일로 보이든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그 선은 바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불안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길을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고 지옥에 가고 맙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철저히 속은 채 인생을 낭비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다가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가게 하게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단지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제대로 사는지 본을 보여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0:10에서 자신이 온 이유는, 사람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제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의도하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여 주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갈 1:3-5)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주님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전 우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태양도 달도 별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과 기는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도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과 놀라운 영적 존재들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께 가서 여쭙다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죄 자체와 죄로 인한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주님을 감히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모든 죄와 불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악과 불법의 값을 치르기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당신의 영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30분 후에 당신의 사형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당신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대체 누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으로서 있습니다. 저는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하나님, 저는 저
길 잃은 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기 원합
니다. 저는 저 죄인이 하늘나라에서 영원을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 사람의 죄값을 지고 죽어서
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원하셨지만 그뿐 아니
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침례교인들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죄
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셔서 당신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
기를 원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을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이 세상
의 영향력과 매력과 정욕으로부터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죄의 권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동일한 하
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
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잠시만 생
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게 되
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십
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늘나라

에 가는 것은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의 죄값을 치르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승리하며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게 승리하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기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도서 2장과 갈라디아서 1장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당신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원하는 사람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원인은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두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사 53:4-5)

시편 32편도 보겠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시 32:1-2)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당

신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당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힌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의 불법 때문이 아니라 저의 불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진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가지를 붙들지 못한다면 다른 한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죄를 지으려고 생각했던 것조차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셔서 그곳에 모두 던져 넣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거나 죄를 자기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에게 구원자를 주셨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수록 자신이 죄의 노예라는 사실만 절실히 깨닫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모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처럼 우리가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것도 모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던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와 도움을 구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정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도와 주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을 도와주셔서 당신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이고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당신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구원받고 나서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마귀가 와서 당신을 다시 옛 생활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의 감정과 느낌을 자극할 것입니다. 다시 이전에 짓던 죄를 지으면서 살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그러면 마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쪽 그 일을 하면 살았어. 어제도 그렇게 살았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다르게 살면 사람들은 너를 광신자나 머저리라고 생각할 꺼야. 그러니 그냥 계속 이전처럼 살자. 일단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보자. 아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죽어서 하늘나라에는 가겠지만 구원받기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훨씬 더 악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하게도 구원받았고 죽으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세상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예수님께서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죄를 완전히 이기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저의 능력이거나 다른 누군가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책(성경)을 항상 붙들어야 하고 당신의 골방에 들어가 그분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이 죄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데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디도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2:14)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정결하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관점, 즉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낙원을 잃

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땀 흘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좋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순결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 죄가 인간 세상으로 들어왔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창조물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제가 인간으로서 간과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거기에 맞는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죄가 그러한 관계를 모두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지만 당신에게 죄가 있는 채로는 당신과 교제를 나눌 수 없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죄와 불법과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교제를 나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정결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당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당신과 친구로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법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은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와 더러움과 사악함을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을 단지 죄로부터 씻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당신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어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십니까? 모든 죄를 지옥으로 가져가서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나를 믿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보자.” 라고 하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앉아 교제를 나누셨고 물고기를 잡아온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견뎌 내신

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삼일 밤낮을 지하세계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당신과 예수님이 함께 탁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당신과 예수님이 함께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며, 당신과 예수님이 함께 거실 쇼파에 앉아 교제를 나누고, 당신과 예수님이 함께 성경을 펴서 읽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결하게 된 당신과 날마다, 순간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모든 일에서, 모든 곳에서,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마귀는 낙심합니다. 마귀를 괴롭게 합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눈물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마귀는 견디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당신에게 세상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을 제시합니다.

마귀는 당신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돈이 필요하잖아. 돈을 벌려면 주일 오후에도 일할 수 밖에 없어.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너무 광신자처럼 믿어서는 안돼. 세상 친구도 사귀어야 하잖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냐구? 그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란 말이야. 신앙생활 한답시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만 하지 말구 말이야.”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진짜 멋있고 좋아 보이고 놀라운 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에게 있는 최고(예

수 그리스도)를 빼앗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 보여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 전 우주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당신과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걷게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당신과 예수님이 함께 앉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디도서 2:14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서 저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광신자라고 생각하건 얼간이라고 생각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 짓고 스스로 신나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함께 하나님

께 경배드리고 아이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훨씬 가치 있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이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도 모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도 모르는 이 세상이야말로 정상이 아니고 미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멋진 건물이 수없이 많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든 건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한줄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재물과 지식과 능력은 아무런 소용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값비싼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등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비록 겉모습은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폭풍이 몰아치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독특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사람들이 다 걷고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

다. 그래서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의도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함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열심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기쁨으로, 열심히, 즐겁게,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십일조를 했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십일조만 내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온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

빠하시느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리설교 하는 날에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하게 하려고 당신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거리설교 하는 날에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님께 대해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이 바른 일을 기쁨이 없이 슬픔 가운데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 억지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콘서트장에 가보면 사람들은 가수에 열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고 참된 소망 가운데 안식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물을 것이고, 그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흥분되십니까? 당신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흥분 가운데 콘서트를 즐기고 운동경기를 즐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참한 얼굴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의 구원자에 대해 궁금해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마귀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즐기면서 사는데 우리는 의를 즐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즐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과거에 마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게 싫어서 교회에 가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런 사람들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이 있다고 진단을 내리기도 의사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기에 병을 발견한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눈을 가

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눈을 완전히 가려버려서 손과 발에 묶인 굶은 쇠사슬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일시적인 즐거움에 현혹되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본성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드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당신 자신을 그분께 내어 드리기 바랍니다. 당신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15. 두 본성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 5:23)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wholly)” 라는 것은 “모든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부분이란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사람들은 몸, 혼, 영의 순서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순서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 혼, 몸의 순서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장 중

요하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만 신경을 쓰고 세속 문화는 그러한 것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에만 중점을 둡니다.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모에만 신경을 씁니다. 심지어 성형수술을 받아서라도 더 나은 외모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외모를 찬양하고 외모에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의 육체를 숭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 즉 육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이 아닌 육신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순수함이나 거룩함이나 정숙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영광하는 원인이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도 육신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언제나 육신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도 육신은 전혀 협력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혼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원하십니다.

영과 혼과 몸은 서로 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우리의 몸은 영과 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우리

의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동료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평균적인 세상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평균적인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평균적인 사람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 오전에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의 거의 전부입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는 성경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진실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구절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씀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고 죄들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방법과는 관계가 없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구원은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그러한 구원은 가정 생활이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의롭게 깨끗하게 사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으로 인해 얻는 유익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정 생활과 자녀 양육과 언어 생활과 행동에도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이 되었고 사교나 친목을 도모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만 의롭고 영광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 길을 걸을 때와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당신의 영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의 육신, 즉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신실하고 경건한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

적이고 마귀적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동일한 성경을 보고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같은 사람이 한편으로는 신실하고 경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원수는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원수는 거울을 보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원수는 당신에게 술을 권하거나 팔아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원수는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과 저의 원수는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를 방해했던 원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당신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이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직장 상사나 동료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당신이 처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는 바로 저의 육신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육신입니다.

독자 중에는 아마 당신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차라리 마귀였으면 하고 바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귀 탓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불의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불행하게도”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당신의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불의하게 살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죄를 짓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마귀는 당신이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죄를 지으라고 당신의 욕망에 호소할 뿐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당신이 불의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불의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불의하게 사는 이유는 세상이나 마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요 3:5-6)

당신이 보고 있는 저의 몸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를 낳은 몸도 또 다른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해 올라가보면 결국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저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6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육신이 육신을 낳는 것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본성은 더욱 악해졌습니다.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었고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입니다.

저는 1976년 12월 17일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으며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육신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 육신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원하던 것을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삼십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을 버렸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음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육신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죄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와도 죄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언제나 육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볼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 명의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믿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이렇게 항상 두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 안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같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같은 곳에 가고 싶어하지도 않고 같은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는 소리도 다르고 좋아하는 냄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옷도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저는 주님께 헌신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저의 또 다른 부분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과 로마서 8장입니다. 우

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 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에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적인 교회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 1:13-14)

당신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성경은 당신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당신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보겠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롬 8:21-23)

성경은 우리가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저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는 아직 구속 받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저는 과거에 구속을 받았지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는 아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

습니다.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의 문제는 하루 24시간 내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문제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아직 성령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 둘이 항상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집에서 TV를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TV 없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쓰레기 같은 세상 잡지를 쳐다보기도 원하지 않는데 다른 한 사람은 다음 달에는 어떤 가십이 실릴지 궁금해 못 견뎌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매일 한발자국씩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인 세상과 육신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이 두 방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반복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 발 자국 주님께로 나아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발자국 주님께 갔다가 한 발자국 세상으로 가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마귀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당신은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이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마귀를 섬기는 사탄적인 파

라오의 궁에서 세상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귀적이고 미신적인 바빌론에서 살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성전에서 음행을 일삼는 두 형제와 함께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상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저의 문제는 저의 외부에 있지 않고 저의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교육시스템이나 제도나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거울을 보면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문제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향의를 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이 당신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망치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에게서 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생긴 타락한 그 성품이 그대로 당신 안까지 전수된 것입니다. 그 성품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당신과 함께 있었고 단 한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던 단짝 친구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막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

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될 가장 악랄한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악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행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을 망치는 가장 사악한 원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고후 4:16)

저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저의 몸이고 육신으로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을 보면 저도 함께 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뛰면 제 몸은 제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한 번 뛰어볼까” 라고 하는데 몸은 “안 될 걸” 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몸을 날려 공을 잡아야지” 라고 하는데 몸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976년 12월 17일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서는 저를 완전히 온전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때와 동일하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날 성령님께서서는 저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요일 3:7-8)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 나타나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번 구원받았고 그 이후로 단 한번도 구원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는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씨는 바로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의 속사람,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순간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제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으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3:9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구원, 즉 몸의 구속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은 당신이 구원받은 순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존 헨트와 그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존 헨트와 그의 부인은 1868년에 영국을 떠나 복음을 전하러 피지로 갔습니다. 그 당시 피지 섬 주위에는 식인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식인종들은 다른 부족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들을 사냥해서 잡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존 헨트와 그의 아내는 피지로 가는 영국 군함을 탔습니다. 군함이 피지 섬 근처에 닿을 내리고 작은 배로 상륙하려고 할 때 그들도 함께 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을 인솔하던 장교가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존 헨트와 그의 아내가 계속해서 배에서 내리려고 하자 장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식인종들이 사는 저 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저곳으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될 겁니다.” 그러자 헨트의 부인이 장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교님,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원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고 죽은 것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인하고 복종시키고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롬 6:11-12)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죽을 몸은 아직도 정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그 정욕을 제거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죄를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정욕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누구의 지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의 지체입니다

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당신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대신 해 주시지 않을 일입니다. 당신의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당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제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저의 손과 입과 눈과 귀는 제가 주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눈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실패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가 당신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육신에 자신을 내어주면 그때부터 마귀는 당신이 육신적으로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이 영적이 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강제로 잡아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을 도박과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과 절망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과 낙심으로부터 당신을 끌어 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야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데 억지로 당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즉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깊은 곳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보시고 저의 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간절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당신을 도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만큼 세상적이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만큼만 타락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속적인 잡지나 TV나 타락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술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잠 23:31). 세상이나 잡지나 TV가 아닌 이 말씀이 술에

대한 기준입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거나 몇 잔까지 괜찮은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면 취할 일도 없으니 얼마나 안전한 기준입니까?

세상으로 얼마나 갔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방향을 잡은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세상으로 방향을 잡으면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잠 24:16).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향하는 그 방향으로 당신은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구원을 향해 방향을 잡았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이 아닌 교회를 향해 방향을 잡았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방향을 잡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넘어지고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언젠가 넘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건 간에 당신은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다만 당신이 바른 곳을 향해 있다면 넘어져도 그 방향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길 위에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전 3:11-13)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불에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을 불에 넣어 보실 겁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당신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영적으로 보이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무리를 인도하지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양떼를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상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 보시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하는지를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동기와 태도로 주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제가 어디로 가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충만이 거하신다면 술집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서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이 바르다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제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바른 곳에 앉아 있어도 생각으로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망치는 것은 세상이나 마귀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옛사람, 겉사람이 바로 당신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 겉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겉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옛사람에게 내어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새사람에게 내어 드리겠습니까? 당신 자신에게 내어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까?

구원은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육신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육신, 이 둘 중 누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 드릴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어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어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당신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6.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음

사무엘하 22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삼하 22:1)

다윗은 주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엡 5:19)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큰 소리로 노래해도 되고 작은 소리로 노래해도 됩니다. 회중과 함께 찬양해도 되고 혼자 찬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의 노래를 듣기 싫어하시면 노래하면 안 됩니다.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노래를 듣기 싫어하면 그 사람에

게는 노래를 하지 마세요. 당신의 찬양을 듣고 싶어하시는 주님께 노래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받지 못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 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약속 받았습시다.

본문의 다윗은 이제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되돌아본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도 다윗처럼 모든 원수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구출될 것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출 받아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당신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치열한 전쟁터에서 수많은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거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주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에는 더 이상 그 누구와의 다툼이나 투쟁이나 전쟁이나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 누구도 당신을 반대하거나 대적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하거나 구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로 인해 주님을 찬양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지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 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2-3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성경에는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약속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쁨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고 확실하고 든든하고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지을 만한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리석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짓고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라는 사실이 오랜 세월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확실하고 단단하고 능력 있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거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일한 반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성경적인 가정 생활과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반석이 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알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확실한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반석이신가 하는 점을 알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위에 집을 짓기에 든든한 반석이신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거처가 되시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저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초이실 뿐만 아니라 저의 기초이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2.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수가

없다면 요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자신을 대적하는 게 없다면 요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게 지낸다면 요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다면 요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요새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있습니다. 저의 정욕과 취향과 욕망과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피할 수 있는 요새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요새가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요새가 있습니다. 원수가 대적하러 올 때 피할 수 있는 요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새이십니다.

저에게는 요새가 필요합니다. 만일 제가 요새를 찍은 사진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요새에 대한 책을 읽고 요새가 무엇인지 공부한다 해도 그것이 저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요새에 대해 특집 기사를 다룬 것을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 해도 그것이 저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안에 실제로 거해야 실제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요새 안으로 들어가 숨어야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새가 되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십니까? 절망스런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대적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마귀가 당신을 유혹할 때 누구에게도 가십니까? 당신의 육신이 당신을 제어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요새

말고 당신 개인의 요새는 누구입니까?

전화기는 당신의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술도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요새는 당신을 원수로부터 지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새는 원수의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새는 원수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야 합니다. 요새는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요새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밖으로 뽑아내서 지옥에 던져 버릴 수 있다면 마귀는 벌써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마귀는 저를 극도로 미워 하며 할 수만 있다면 지옥으로 던져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의 요새는 저의 원수보다 월등하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의 육신과 정욕과 욕망이 저를 그리스도 밖으로 끌고 가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해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저는 예전에 구원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저는 저의 육체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육신도 얼마나 악하고 쓸모 없는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육신대로 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저는 벌써 구원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요새는 저의 육신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저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능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앞으로 있을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저에게는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있고 저의 혼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 중 누구도 저의 요새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는 사

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주님의 나의 구출자입니다

저는 이 세상 그 무엇의 공격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요새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새가 저의 요새라는 사실이 기쁩니다.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요새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구출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출자입니다. 당신은 구출 받아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상관없이 당신을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원하지 않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으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출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을 바빌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무덤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데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죽음에 속한 자들을 생명으로 데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데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출하실 수 있는 위대한 구출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대한 구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개인적인 구출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출자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기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제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 바울은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게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면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기쁩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보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게 훨씬 더 흥분됩니다. 아마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바울과 같이 자신의 구원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훨씬 더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다른 누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구출자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출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쓴 간증집을 봐도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지옥과 정욕으로부터 구출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떤 죄와 습관과 문제로부터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간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하셨는지를 듣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제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불길 가운데 고통 당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구출에 대한 간증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구출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빠졌던 구렁이에서 저를 건져 올리신 사실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출자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걸 들으면 주님께서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해 주셨지만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충분하지만 자신에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출자가 아닙니다. 구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요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새입니다. 당신은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기초가 반석이신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요새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출자가 되게 하십시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잘못을 범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까지는 나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출자로 믿지 않았

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구출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구출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담배를 끊고 술을 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구출자는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출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정말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나버렸다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크지 않고 심각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전사였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챔피언(투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 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게서 네 머리를 취하고 또 이 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삼상 17:45-47)

다윗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아무도 이길 수 없던 거인을 쉽게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는 작은 여인(밧세바)을 향한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문제여서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고 어려운 문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지만 작고 하찮은 문제는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재앙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작고 쉬운 문제는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마칠 때가 되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에게 구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술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자신의 구출자의 힘과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신뢰했을 때에는 죄의 종이 되어 속박되어 있었지만 주님을 구출자로 신뢰했을 때에는 모든 문제와 원수로부터 구출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구출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것을 당신이 믿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빌론의

포로에서 구출하신 것을 당신이 믿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사실을 당신이 믿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눈 깜짝하는 순간에 모두 일으키실 것을 당신이 믿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구출자께서 당신의 하나님과 당신의 구출자가 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구출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담배와 술의 중독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도록 하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다른 사람을 헐담하는 것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도록 하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복음을 전하기 두려워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함으로부터 구출해주시도록 하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은 구출자이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문제로부터 구출해 주시도록, 당신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뜻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구출자이십니까?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구출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압살롬은 왔다 갔습니다. 시므온도 왔다 갔습니다. 사울도 왔다 갔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작은 무리를 인도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가 승리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구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4.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성경은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는 “주님

은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반석이시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반석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성경은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 5:7)

저는 이중으로 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두 배로 튼튼합니다. 두 배로 확실합니다. 저는 반석이신 아들 하나님 위에 서 있고 동시에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5.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16에 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사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종이로 만든 종이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만든 종이 방패로는 사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불화살은 당신이 만든 엉터리 방패를 뚫고 들어와 당신의 가슴에 박힐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을 겁니다.

“주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윗이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주님, 제가 만든 방패를 좀 보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 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방패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악한 자가 다윗에게 불화살을 쏘 때 다윗은 자신의 방패로 그것을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 뒤로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께서 그의 방패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 습니다. 그 전신갑주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2:20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 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 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의 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믿음으로 만든 방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만든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것이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마 16:21-23).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 의 젓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하나님을 붙들고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 까?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야,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베드로와 마귀 사이에 넣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귀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와 마귀를 분리하여 마귀를 자신의 뒤로 가라고 하심으로 자신이 마귀와 베드로 사이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으로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막아준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는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방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세상과 마귀와 우리 자신의 육신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원수와 싸운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을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능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저의 정욕과 욕망과 육신과 약함과 마귀가 주는 모든 유혹은 오직 예수님만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서는 처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의 몸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와 싸운다면 당신은 패배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의 믿음을 방패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겁니다. 마귀는 저의 믿음을 파괴한 적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단 한번도 파괴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믿음으로 방패를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방패를 삼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패로 저의 몸을 막을 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서 우리는 견고한 요새를 건축합니다. 그 요새 안에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며 구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크고 단단한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계속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요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방패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 주신 모든 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제가 그 곳에 있는 한 저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6.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것은 구원 그 이상의 것입니다. 뿔은 승리의 선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승리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니다. 저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영원히 확실하게 승리하며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사람들에게 뿔 나팔을 크게 불어 알려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선포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쉬고 최대한 크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선포해야 할까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견딜 것이다.” 역시 아닙니다. “나는 이를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선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나를 씻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해 주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세상에 선포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속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뿔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의 뿔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주님이 자신의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했습니다.

7.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높은 망대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새에는 높은 망대가 있습니다. 그 망대는 관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망대 위에서는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망대 위는 아래보다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망대는 요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가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나빠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높은 망대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망대이신 주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망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스랍들은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 있었습니다. 스랍들이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사 6:3)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높은 망대가 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리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단지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 2:6).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망대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가 들림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높은 망대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왕관과 보석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높

은 망대에서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이 세상으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왕국을 세우시며 천년 간 통치하시는 것을 봅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유가 고갈되면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것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일의 결말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일의 전체 끝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야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개인적인 망대가 있습니까?

8.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피난처(refuge)라는 것은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율법 시대에는 도피성읍(city of refuge)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일 숨어서 기다리다가 고의로 누군가를 쳐서 죽였다면 저도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사형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죽은 사람의 가족은 그것이 실수든 고의든 상관하지 않고 저에게 똑같이 보복하고자 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가족은 저를 추적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피성읍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도피성읍으로 도망가서 대제사장에게 저의 사건을 설명하면 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피성읍에서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저의 죄로 말미암아 저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눅 23:34)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살인죄를 과실치사죄로 감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제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면 저는 도피성읍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고의로 살인을 했다면 저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면 저는 도피성읍으로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 주세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그러자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저는 그 문으로 들어갔고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저를 뒤쫓던 죄의 값인 사망은 문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을 보면서 이렇게 말

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의 피난처이니 너는 이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서 당신의 피난처도 되시는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께서 피난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 개인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9.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뿔이라고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래에 어느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구원자가 되실 거라는 이 사실을 당신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저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날에 저는 죄의 삶과 죄의 임재와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구원자께서 지금 저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자께서 저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구원자께서 제 안에 거하십니다. 제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저는 많은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어떤 설교자가 인용한 구절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짓는 죄들이 제 인생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제대로 알

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옥에서만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죄로부터도 구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만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것 저것 많은 것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죄로부터 구원하셨으며 다른 수많은 것들로부터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구원해 주실 겁니다. 저의 구출자는 계속해서 저를 구출해 주고 계십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계속해서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의 방패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보호해주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날마다 순간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지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시며 요새시고 구출자이시며 방패시고 구원의 뿔이시며 높은 망대시고 피난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분이 당신의 반석이시고, 당신의 요새시고, 당신의 구출자시고, 당신의 방패시고, 당신의 구원의 뿔이시고, 당신의 높은 망대시고, 당신의 피난처이고, 당신의 구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은 “나는 나의 사랑하시는 이의 것이

요. 나의 사랑하시는 이는 내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아 6:3). 당신은 “그분께서 나를 잔칫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아 2:4).

당신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인간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종교를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당신이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수백 번 이상 구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고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행한 사실은 독자 중에는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바랍니다. 그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분들은 이제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셔서 당신이 그분과 항상 동행하고 그분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A decorative border with a repeating floral pattern surrounds the central text.

부록

부록1: 가장 중요한 질문

글 Dennis Costella, Matt Costella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 8:36)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삶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래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막 8:36-37) 당신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영원을 보내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인생은 의문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반드시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으며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감정을 신뢰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교회나 종교를 믿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나 사후세계나 영적인 것에 관해 다른 누군가의 말을 믿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붙들고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다음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 중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와 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들**”(엡 2:3)이었으며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엡 2:1)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우리는 모두 완벽한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현재 상태 그대로 당장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또한 성경은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27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로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어린양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주님의 거룩하신 면전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는 어디서 영원을 보내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15은 이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이 있는 실존 장소입니다. 성경은 불 호수에서 영원히 고통 당하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롬 6:23)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죽음 이후에는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통해 죄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 죄보다 많은 선을 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악행보다는 선행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들(침례나 세례, 고해성사, 주의 만찬 등)을 하면 죄 문제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은 모두 착각일 뿐이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결코 피하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공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딤후 3:5)

사실 우리는 아무런 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 64:6)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종교적이고 영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살면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우리 자신의 내

면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없앨 수도 없으며 온전히 거룩한 의로
우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
와 그 형벌로부터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
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을 위해 죽으셨느니라.”**(롬 5:6)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
런 힘이 없을 때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힘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
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고 있고 희망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혜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
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
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
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
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로마서 5:8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

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 2:24)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롬 4:25)

짚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 두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와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의 주님 위에 놓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요 19:30) 라고 울부짚으셨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선물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해결책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야만 그분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원하면 자신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인이 치러야 할 값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행 10:43) 이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죄를 모두 용서 받고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약속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롬 5:1-2)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에 2:8-9)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

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행 16:31)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 3:16-18)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 4:5)

즉각적인 기회

독자여,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를 모두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의로는 정죄만 당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당신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고후 5:21).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로마서 3:26)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았거나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11-13은, 믿는 사람은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과 자신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실들도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전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 7:25)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 10:28)

성경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 4:30)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봉인되었으므로 영원히 안전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머리로만 받아

들이지 말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선행이나 성사나 종교의식이나 교회 출석이나 도덕이나 침례나 세례나 영성 체험이나 다른 무엇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죽으면 끝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같보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이러한 초청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행 20:21)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

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거나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죄 가운데 완전히 버림받았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성경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받고 씻음 받으며 성령님께서는 당신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계 22:17)

부록2: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이 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글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관련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시고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11에 묘사된 사람들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사 6:3, 57:1, 벰전 1:15, 계 4:8).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된 것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십니다(사 59:2, 시 24:3-4, 사 6:3-5). 성경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히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14:6, 딤후전 2:3-6).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시 14:1-3, 롬 3:10-18, 23, 사 53:6, 시

51:5, 왕상 8:46). 당신의 마음도 악하고 사악합니다(렘 17:9-10, 막 7:20-23, 마 7:11). 그러므로 당신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롬 3:19). 그래서 현재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상태이며 그분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살후 1:8-9, 마 25:41, 46, 막 9:42-48, 계 20:11-15, 21:8).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포함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요 3:17, 마 1:21-23, 눅 19:10, 딤후 1:15).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1:1, 사 7:14, 9:6, 미 5:2, 딤후 2:13)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는데(요 1:3, 골 1:13-16)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당신을 대신해서, 저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저와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사 53장, 롬 5:6-8, 고전 15:3, 고후 5:21, 갈 1:4, 벧전 2:24, 3:18, 요일 2:2, 3:16, 4:10).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저를 대신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에 만족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고전 15:4-20, 롬 4:25). 또한 이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주장하신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롬 1:4).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알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책임입니다(행 16:30-31, 요 3:16, 18, 36).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요 6:35-37)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요 1:12, 롬 6:23).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1. 주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행 4:12, 요 10:9, 14:6).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2.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살전 4:14, 고전 15:3-4, 롬 10:9).
3.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히 7:25, 사 59:1, 마 19:24-26).
4.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요 6:37, 딤후 2:4).
5.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요 3:16).

당신은 다음의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 당신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사 64:6, 엡 2:9, 딤후 3:5).
2.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롬 3:20, 갈 2:16, 약 2:10).
3.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엡 2:8-9, 행 16:31).

당신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엡 2:4-9, 딤후 3:4-7).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 무엇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딤후 1:2, 히 6:18),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히 13:8),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 기쁨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28, 요한복음 1:12, 3:16, 3:18, 3:36, 5:24, 6:35, 6:37, 6:47, 10:9, 11:25, 사도행전 10:43, 로마서 10:9, 10:13, 요한일서 5:11-12

구원받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벧후 3:18).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해야 합니다.

1.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마 28:19-20, 행 10:48, 2:38),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고후 5:14-17, 롬 6:3-11, 갈 2:20).
2.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합니다(벧전 2:2, 마 4:4, 시 119:97).
3.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히 4:16, 살전 5:17, 눅 18:1).
4.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신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행 2:42, 히 10:25).
5. 매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생각으로 짓는 죄나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분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요일 1:8-2:2, 요일 1:9, 시 51:3-6, 시 32:3-6, 잠 28:13).
6.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시 107:2, 마 10:32, 롬 10:9-10).
7. 행실과 입술과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행 1:8, 사 43:10-12). 당신이 사는 방식과 인생과 말을 통해 사람들

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빌 2:15-16, 골 3:17, 벧전 3:15, 골 4:5-6).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문서사역 후원 안내

“그러나 진리의 성경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단 10:21a) 천사가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도서출판 진리의성경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책들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근거하면서 킹제임스성경을 전혀 비평하지 않는 책들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책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전제로 저술한 책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는 전제로 만든 책들을 출간하고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성도들을 세워주는 건전한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도서 구매가 어려운 교회와 개인에게 무상으로 도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서사역 후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무상으로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진리의성경을 통해 사업이 아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금전적인 이윤보다는 구원받은 혼과 영적 성장이 남기를 원합니다. 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대표
이우진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국민은행 384702-04-212299 이우진(문서사역)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http://cafe.naver.com/bbckjb>)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게시판을 참고 하십시오.
- 후원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후원금액을 문자(010-2322-1611)나 메일(kjv74@hanmail.net 또는 kjv74@naver.com)로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해당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원저자 :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목사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 주의 달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지금까지 600만 개의 도서와 테이프 자료들을 전 세계에 보급해 왔습니다. 그는 30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문서사역과 테이프 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nox.org>

*** 편역자 : 이우진**

이우진 목사는 1974년 4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여의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펜사콜라성경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균관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1990년 7월 중순 호주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1994년부터 문서사역을, 그리고 1997년부터 교회와 신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우진 목사는 펜사콜라성경신학원과 킹제임스성경신학원에서 10여년에 걸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월간 강단의거성과 도서출판 킹제임스에서 편집장으로, 그리고 진리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으며, 40여 권의 책을 번역하거나 저술했습니다. 그는 2007년에 도서출판 진리의성경을, 그리고 2014년에 분당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http://cafe.naver.com/bbckjb>

